

# Facebook을 기반으로 한 통성경 읽기

소셜미디어를 통한 통성경 읽기에 대한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신상준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8년 5월

Copyright © 2018 Sangjun Shin

All rights reserved.

## ABSTRACT

### Tong-Bible Reading with Facebook : A Study of Reading the Bible through with Social Media

Sangjun Shin

Open Church, Jeju

The Bible, God's Word, has been proclaimed and influenced by the media of the time. Today's anxieties of the church will be how to deliver the Word of God to the world in a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ead the entire Bible through the Tong Bible method of Byoungho Zoh's on the basis of social media.

First, this study looked at social media environment, in other words, the media environment of today. Many people are communicating with social media, exchanging information, and producing contents. In this kind of social condition, Christianity should use social media to create a way to spread the Bible that contains the essence of Christianity. The researcher found that one of social network services called 'Facebook,' which is the most popular service among other social media, could be useful for introducing the Bible.

In this study, the methodology of 'Tong Bible' was chosen as a way of reading the Bible. As a result, we divided the Bible into '7 tracks,' 'God's mind 20,' and 'Bible stems 40,' and lectured on Facebook. This study used Facebook as a tool to create a 'group.'

After the lecture, we interviewed the participants divided by different generations. The study found that there was a meaningful change in the perception that the whole Bible is being viewed in the Bible. By linking the stories of the Bible with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there was a change that made the Bible recognizable as a historical fact, not a fiction. It also showed that the benefits of social media have had positive

results in learning and teaching the Bible.

I hope that this project will contribute to the way of Tong Bible reading and studying on the basis of Social media based on Facebook.

## 국문초록

Facebook을 기반으로 한 통성경 읽기  
: 소셜미디어를 통한 통성경 읽기에 대한 연구

신상준

열린교회, 제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까지 그 시대의 미디어에 담겨서 세상에 선포되었고, 영향력을 미쳤다. 오늘날 교회의 고민은 급변해 가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세상에 전할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조병호의 통성경의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인 소셜 미디어 환경에 대해 살펴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로 소통하고 있고, 정보를 교환하고, 콘텐츠를 생산해 내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성경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Facebook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성경을 소개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 통성경(Tong Bible)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성경을 ‘7개의 트랙’으로, ‘하나님의 마음 20’으로, ‘성경 줄기 40’으로 나누어서 Facebook에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Facebook에서 ‘그룹’ 을 만들어 강의를 담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강의 후에 세대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결과 통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성경의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과 연결시킴으로 성경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변화도 있었다. 또한 소셜 미디어가 주는 장점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이 Facebook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통성경 읽기와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           |
|--|-----------|
| 감사의 글 .....                              | x         |
| 표 목차 .....                               | ix        |
| <b>I. 서론 .....</b>                       | <b>1</b>  |
| 연구의 목적 .....                             | 1         |
| 연구의 의의 .....                             | 3         |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4         |
| <b>II. 소셜미디어(Social Media)의 이해 .....</b> | <b>6</b>  |
| 미디어의 발달 과정 .....                         | 6         |
|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의 .....                       | 7         |
| 소셜미디어인 SNS 이용 현황 .....                   | 11        |
|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세대별 분석 .....                 | 12        |
| 소셜미디어의 한계성 .....                         | 13        |
| <b>III. 소셜 미디어로서의 Facebook .....</b>     | <b>16</b> |
| 소셜미디어에서 Facebook의 위치 .....               | 16        |
| Facebook의 공간에 대한 이해 .....                | 17        |
| Facebook의 ‘그룹’ (Group) 만들기 .....         | 18        |
| Facebook의 그룹에서 강의의 예시 .....              | 21        |
| <b>IV. Facebook에서 통성경 기반의 성경통독 .....</b> | <b>24</b> |
| Facebook에서의 통성경 성경통독의 시작 .....           | 24        |
| 통성경이란 무엇인가? .....                        | 25        |
| 통성경에서의 성경통독은 무엇인가? .....                 | 30        |

|   |     |
|---|-----|
| 통트랙스 7 .....                            | 36  |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                     | 41  |
| 하나님의 마음 20 .....                        | 48  |
| 성경줄기 40 .....                           | 54  |
| Facebook 그룹에서 통성경 강의를 대한 설문 및 인터뷰 ..... | 57  |
| Facebook 그룹 멤버들의 구성 및 반응 분석 .....       | 63  |
| <b>V. 결론</b> .....                      | 70  |
| 요약 및 평가 .....                           | 70  |
| 결론과 제언 .....                            | 72  |
| <b>부록</b> .....                         | 74  |
| <b>참고 문헌</b> .....                      | 121 |

## 표 목차

|   |    |
|---|----|
| <표1> 소셜미디어와 대중매체의 차이점 .....                   | 8  |
| <표2> 국가별 인구대비 SNS이용률 .....                    | 11 |
| <표3>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 응답자의 SNS 이용 분포 .....       | 11 |
| <표4> 2013~2015 한국미디어패널 성별, 연령대별 SNS 이용률 ..... | 13 |
| <표5> 1년 10번 역사순 성경듣기(읽기) 체크표 .....            | 29 |
| <표6> 1년 1독 성경통독표 .....                        | 35 |
| <표7> 하나님의 마음 20에 따른 5주간, 10주간 성경통독범위 .....    | 50 |
| <표8> 사도행전과 서신서, 바울의 전도여행 .....                | 53 |
| <표9> 성경줄기 40 .....                            | 56 |

##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하고, 이렇게 감사의 글을 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을 저의 가슴 속에 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숙제를 기록한 부담감으로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조병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저에게 섬기는 교회를 뛰어 넘어 또 다른 넓은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 주셔서, 더 넓은 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Facebook의 통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여 기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과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주신 열린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부하고 목회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마음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아내 이정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18. 5.

신 상 준

## 제 I 장

### 서 론

#### 연구의 목적

미디어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도구로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탄생하고 발전되었으며, 기독교는 이와 같은 미디어를 복음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왔다. 성경은 그 시대에 맞는 미디어를 통해 인간에게 계시되었다.<sup>1</sup>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성경과 그 복음은 이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디어는 변화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의 형태가 아날로그 기반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고, 아울러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결합은 뉴미디어라고 통칭하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미디어의 시대를 열었다. 인터넷의 출현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은 우리를 지금까지 아날로그 시대의 미디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미디어의 시대로 이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sup>2</sup>

---

<sup>1</sup> 정기목, “선교 대상으로서 사이버 자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신학대학교, 2009), 111.

<sup>2</sup> 정기목, “뉴미디어 시대와 미디어 선교,” *선교와신학* 32집 (2013, 가을), 81.

에릭 슈미트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가진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이나 악 중 어떤 목적을 위해 쓰일지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 고 말했다.<sup>3</sup> 이 말은 우리가 오늘의 미디어를 선교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미디어라는 칼의 손잡이를 잡느냐 아니면 칼날을 잡느냐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2000 여 년 전의 오래된 미디어인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 현대 사회에 소통의 도구를 전달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면, 성경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과거의 유물로 사장되지 않고 현대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 살아 움직이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등장한다면 이전까지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확산되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보전달과 소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인 소셜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여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그 실례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Facebook 이라는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에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통성경이라는 성경통독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논문을 진행하고자 한다.

---

<sup>3</sup> Eric Schmidt and Jared Cohen, 이진원 역, *새로운 디지털 시대* (서울: 알키, 2013), 22.

## 연구의 의의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2017 년말 전 세계 인구 대비 스마트폰 보급률은 43.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 년 39.4%보다 4.4% 증가한 수치다. 아이폰이 등장한 2007 년 2.6%에 불과하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2 년(14.7%) 처음 두 자릿수 대를 기록했고, 2019 년에는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2017 년 말 기준 지역별 예상치를 보면 북미가 74.1%로 가장 높았고, 아프리카 및 중동이 23.6%로 가장 낮았다. 한국은 2016 년보다 3.3%늘어난 77.6%로 6 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전 세계 1 위인 홍콩(84.7%)이어 보급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은 72%로 10 위, 일본은 65.3%로 19 위였다.<sup>4</sup>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24 시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성경의 전달 방법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성경을 전달함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2010 년대 들어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동전화 이용자에게 있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 SNS란 ‘인터넷을 매개로 특정 목적을 위해 타인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는 쌍방향 소통 서비스’로서 카카오톡, Facebook, 트위터 등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한국은 특히 인터넷의 보급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서 다른 나라에 비하여 SNS가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과거의 SNS가 PC기반의 글 위주의 서비스이었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상의 사진 및 동영상을 이용한 서비스로 확대되고

---

<sup>4</sup>[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smartphone\\_penetration#2017\\_rankings](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smartphone_penetration#2017_rankings) (2018년 1월 29일 확인).

있다. 이러한 SNS는 최근 기업의 홍보 및 광고의 수단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 특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sup>5</sup>

SNS 환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이라는 풍성한 콘텐츠를 소셜네트워크라는 정보수집과 정보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Facebook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성경을 전달할 대상들에게 다가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연구의 범위와 방법

먼저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살펴 봄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네트워크 환경을 인식하고, 교회는 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활용해야하는지 전망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Facebook이라는 네트워크서비스의 특성과 사용방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Facebook에서 ‘그룹(group)’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참여할 멤버들을 구성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 다루겠다.

성경을 전달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Facebook의 ‘그룹’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살필 수 있는 조병호의 ‘통(通)성경’의 방법론을 채택한 성경 읽기와 전달 방법의 과정들을 제시할 것이다. 여기에서 Facebook 그룹에 직접 올렸던 강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도 첨부할 것이다.

---

<sup>5</sup> 신현철,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형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2), 1.

그리고 Facebook 이라는 소셜 미디어가 통(通)성경 읽기를 진행하는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Facebook 을 통해 진행된 통(通)성경 강의가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결과를 개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Facebook 에는 참여 멤버들과 반응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 이 도구를 이용해서 참여한 멤버들의 지역적,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분석하고, 언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며, 어느 시간대를 주로 활용하는지를 수치와 그래프로 정리해서 Facebook 강의에 더욱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제시하고자 한다.

## 제 II 장

###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이해

#### 미디어의 발달 과정

인간의 언어와 문자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이다. 태초부터의 말씀은 구전으로 전승되었고, 이후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계명을 새겼으며 이후에 양피지와 파피루스 등을 통해 필사본으로 전해졌다.<sup>1</sup>

1445년 구텐베르그에 의해 활판인쇄술이 발명되고 인쇄된 성경을 갖게 되면서 활자 미디어는 기독교 선교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인쇄기의 발명은 책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와 같은 미디어를 만들어 내면서 제 1기 미디어 시대를 열었다. 인쇄된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복제를 통해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sup>2</sup>

1876년 알렉산더 벨이 전신 전화를 발명하면서 제 2기 미디어인 전파 미디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전파 미디어는 이제 거리와 시간을 초월하여

---

<sup>1</sup> 안홍철, “미디어는 메시지다?” 『한국기독교공보』 제 2854 호, 2012. 6. 13.

<sup>2</sup> 김정탁, *미디어와 인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5.

동시적으로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되었고, 소리 위주의 라디오가 중요한 미디어로 등장하였다.<sup>3</sup>

여기에서 더 발전하여 카메라와 영상매체는 소리뿐만 아니라 현장의 생생한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공간으로 전달한다. 뉴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은 인간이 어떤 장소와 시간에 있든지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 3기는 음성 위주의 정보전달에서 영상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게 된 영상 미디어 시대이다.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영화가 발명되고 이어서 텔레비전의 등장은 인간의 삶의 행태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매스 미디어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sup>4</sup>

이와 같은 미디어 발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는 미디어를 복음전달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인쇄 미디어를 통해서도 성경과 기독교 사상을 확산시켰고, 소리와 영상 미디어의 발달로 기독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각종 라디오와 영상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이제 소셜 미디어와 같은 뉴미디어 상황으로 변화되는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를 전달할 또 다른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대가 되었다.

###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그 성격을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 소셜

<sup>3</sup> 한상용,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와 선교,” *기독교사상* 38(1994.7), 40.

<sup>4</sup> 조윤희 편저, *정보사회론* (서울: 신지원, 2013), 144.

미디어는 그 자체가 일종의 유기체처럼 성장하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TV, 신문, 잡지, 라디오 등과 같은 미디어가 일대다(one-to-many)의 일방적 관계에 기초한 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가졌다면, 소셜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다양한 이용자들이 의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다대다(many-to-many)의 쌍방향적 관계성을 토대로 하므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의 특징을 지닌다. 방송매체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이용자인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소셜 미디어는 그 이용자들이 콘텐츠의 소비자임과 동시에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다음 표에서 정보에 대한 도달률, 접근성, 유용성, 신속성, 영속성에 따라 소셜 미디어와 대중매체의 차이점을 간략한 표를 통해서 살펴 보았다.<sup>5</sup>

<표1> 소셜 미디어와 대중매체의 차이점

|                        | 소셜 미디어  | 대중매체   |
|------------------------|---|--|
| 도달률<br>(reach)         | 분권화되어 있고 덜 위계적이며 생산과 유용성 측면에서 다면적임                    | 중앙 집중적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기술적으로 스케일을 제공하고 글로벌 수용자에게 도달될 수 있음 |
| 접근성<br>(accessibility) | 일반적으로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개인 또는 정부가 소유하는 형태를 취함                                  |
| 유용성<br>(usability)     |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과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술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보 | 생산에 전문적인 기술과 훈련이 요구 됨                                  |

<sup>5</sup> 설진아, “소셜 미디어(Social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9. 12), 38.

|                     |   |                                       |
|---------------------|---|---------------------------------------|
|                     | 통 기술을 필요로 함                               |                                       |
| 신속성<br>(immediacy)  | 반응이 거의 즉각적이고<br>반응의 지체 여부는 참여<br>자들만이 결정함 |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며<br>칠, 몇 주 또는 몇 달이<br>걸림 |
| 영속성<br>(permanence) | 코멘트나 편집을 통해 거<br>의 즉각적으로 내용을 변<br>경할 수 있음 | 한 번 제작 하면 바꿀 수<br>없음                  |

### 소셜 미디어의 종류

소셜 미디어의 종류는 블로그(Blog),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위키(Wiki), UCC,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 등의 5 가지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Web) 기반의 플랫폼을 소셜 미디어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sup>6</sup>

### 소셜 미디어의 탄생배경

첨단 정보통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의 결과로서 사회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 디지털 카메라 및 MP3의 보급 등으로 오디오, 비디오 등을 활용한 사이버상의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도 하는 프로슈머(Prosumer)<sup>7</sup>의 활동이 가속화되었다.

<sup>6</sup> Wikipedia, “소셜 미디어” 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5%9C\\_%EB%AF%B8%EB%94%94%EC%96%B4](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5%9C_%EB%AF%B8%EB%94%94%EC%96%B4)  
(2018년 2월 19일 확인).

<sup>7</sup> Wikipedia, “프로슈머(Prosumer)” 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A1%9C%EC%8A%88%EB%A8%B8> (2018년 2월 19일 확인). Producer(생산자) 또는 professioner(전문가)과 consumer(소비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프로슈머의 개념은 1972년 마셜 맥루언과 베링턴 네빗이 『현대를 이해한다』(Take Today)에서 “전기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처음 등장했으며, “프로슈머”라는 단어는 1980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최초로 사용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되었다는 것은 소비자이기는 하지만 제품 생산에도 기여한다는 의미이며, 전문가와 소비자가 결합된 경우는 비전문가이지만 타 전문가의 분야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다. 프로슈머는 기존

소셜 미디어의 탄생에는 사회의 분화와 재통합에 따른 문화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개인화와 네트워크화로 대표되는 사회의 분화와 재통합이 나타남에 따라 개인적 미디어의 등장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퍼스널과 소셜의 융합을 촉진하게 된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탄생에 있어서 기반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기능을 극대화시켰다. 현재는 웹 2.0<sup>8</sup> 기반의 기술을 지나서 웹 3.0<sup>9</sup>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친화욕구와 자기표현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화와 더불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욕구가 편리한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소셜 미디어를 탄생하게 만든 배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

소비자와는 달리 생산활동 일부에 직접 참여한다. 프로슈머는 소비자의 의견을 생산자에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받지만,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무조건적인 안티(Anti) 문화를 형성하기도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2018년 2월 19일 확인).

<sup>8</sup> Wikipedia, “웹 2.0(Web 2.0)” 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2.0](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2.0) (2018년 2월 19일 확인). 웹 2.0이란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을 말한다. 웹 1.0이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여주었다면, 웹 2.0은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다(2018년 2월 19일 확인).

<sup>9</sup> Wikipedia, “웹 3.0(Web 3.0)” 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3.0](https://ko.wikipedia.org/wiki/%EC%9B%B9_3.0) (2018년 2월 19일 확인). 웹 3.0이란 컴퓨터가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웹 기술을 말한다. 지능화, 개인화된 맞춤형 웹이다(2018년 2월 19일 확인).

<sup>10</sup> Wikipedia, “소셜 디디어” 항목, [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5%9C\\_%EB%AF%B8%EB%94%94%EC%96%B4](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5%9C_%EB%AF%B8%EB%94%94%EC%96%B4) (2018년 2월 19일 확인)

## 소셜 미디어인 SNS이용 현황

2014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25.3%가 SNS를 이용하고 한국은 2015년 기준해서 전체 인구의 59%가 SNS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sup>11</sup>

<표2> 국가별 인구대비 SNS 이용률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
| 한국 | 50.1 | 54.4 | 57.0 | 59.0 |
| 미국 | 50.1 | 51.7 | 53.1 | 54.5 |
| 영국 | 47.7 | 50.2 | 52.6 | 53.9 |
| 일본 | 35.4 | 37.8 | 40.1 | 41.5 |
| 중국 | 22.9 | 25.8 | 28.1 | 30.2 |

한국미디어패널의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상의 SNS 이용자들은 2014년 기준 ‘주로 사용하는 SNS 계정’ 으로 카카오톡 (51%), Facebook(26%), 트위터(10%), 네이버 밴드(5%)를 지목하였다.<sup>12</sup>

<표3> 2014년 한국미디어패널 응답자의 SNS 이용 분포

| 주로 사용하는 SNS | 빈도수   | %    |
|-------------|-------|------|
| 카카오톡        | 1,812 | 51.1 |
| Facebook    | 922   | 26.0 |
| 트위터         | 364   | 10.3 |
| 네이버밴드       | 196   | 5.5  |

<sup>11</sup> 신현철,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형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2), 2.

<sup>12</sup> Ibid., 4.

##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세대별 분석

전체 SNS의 이용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非대도시 지역에 거주할수록, 메시지를 이용할수록, 스마트폰을 사용할수록 SNS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NS 별로 분석하면 카카오토크의 경우 여성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혼일수록, 非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메시지를 사용할수록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acebook의 경우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SNS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시간의 경우 일반적 SNS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특별한 날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반면 ‘활발한 SNS 이용자’의 SNS 이용시간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SNS의 서비스별 이용자특성 및 SNS 이용시간 결정요인 분석은 SNS 이용자의 이용특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기업의 마케팅 등의 활동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up>13</sup>

---

<sup>13</sup> 신현철,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형태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 2), 17.

<표4> 2013~2015 한국미디어패널 성별, 연령대별 SNS 이용률<sup>14</sup>

(단위%)

|     |     | 2013 | 2014 | 2015 | 증감   |
|-----|-----|------|------|------|------|
| 전체  |     | 31.3 | 39.9 | 43.1 | +3.2 |
| 성 별 | 남   | 32.0 | 41.6 | 44.3 | +2.7 |
|     | 여   | 30.5 | 38.2 | 41.8 | +3.6 |
| 연령별 | 10대 | 48.7 | 53.9 | 51.3 | -2.6 |
|     | 20대 | 48.7 | 74.4 | 75.6 | +1.2 |
|     | 30대 | 69.3 | 61.0 | 65.1 | +4.1 |
|     | 40대 | 46.9 | 43.7 | 50.2 | +6.5 |
|     | 50대 | 10.1 | 21.5 | 30.4 | +8.9 |
|     | 60대 | 1.7  | 5.1  | 8.7  | +3.6 |

### 소셜 미디어의 한계성

소셜 미디어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접근성이나 신속성, 그리고 개방성에 있어서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미디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다.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면서 한계성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개인정보 누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져 있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정보들이

<sup>14</sup> 김윤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STAT Report*, (2016. 4)

수집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쌓이고 있는 것이다. 해킹이나 정보 유출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각종 마케팅이나,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피해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많이 사용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sup>15</sup>

### 기존 네트워크 위협과 스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다 보면 누가 보냈는지 모를 파일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파일을 열어봄으로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파일 공유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 유출이 스팸으로 피해를 주기도 한다.<sup>16</sup>

### 잘못된 정보의 확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확산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그 피해는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언론의 오보는 수 시간 안에 수백만 명에게 퍼져서 기정 사실화 되는 심각한 재앙이 되기도 한다.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도 모르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삼시간에

---

<sup>15</sup> 강용훈,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선교방법 모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30.

<sup>16</sup> Ibid., 31.

퍼져 나간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특성때문에 잘못된 뉴스와 정보가 사실 검증 없이 퍼져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sup>17</sup>

---

<sup>17</sup> Ibid., 32.

## 제 III 장

### 소셜 미디어로서의 Facebook

#### 소셜 미디어에서 Facebook의 위치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이었던 마크 저커버그는 2학년 때인 2003년 10월 28일에 “Facemash” 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뒤 2004년 2월 4일에 “TheFaceBook” 이라는 이름으로 thefacebook.co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2004년 6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의 팰러앨토로 회사를 옮겼다. 그 뒤페이팔 공동 창립자 피터 틸로부터 첫 투자를 받았다. 그 뒤 이 기업은 facebook.com 도메인 이름을 2005년에 200,000 달러를 주고 구매한 뒤 이름에서 The 를 빼어 지금의 이름 "Facebook"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Facebook” 이라는 이름은 학기 초에 학교 측에서 학생들 사이의 교류를 위해 학생들의 정보를 제공해주었던 책에서 비롯되었다. 처음에는 하버드 대학교의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3월에는 스탠퍼드, 컬럼비아, 예일까지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그 이후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뉴욕 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미국과 캐나다의 대부분 대학교로 영역이 확대되었고 2005년 9월에는 고등학교에까지 영역이 확대되었다. 2005년 말까지 2,000 개 이상의 대학과 25,000 개 이상의 고등학교의 네트워크가 생성되었다. 그 이후로는 몇몇 기업에까지

회원 영역을 넓혔으며, 마침내 2006년 9월에는 13살 이상의 전자 우편 주소를 가진 사용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Facebook은 2015년 2분기 기준, 전 세계 14억 9천만 명 이상의 월 활동 사용자(MAU)<sup>1</sup>가 활동 중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구인 30억 명의 절반 가량이 Facebook을 사용하고 있는 수치이다.<sup>2</sup>

### Facebook 공간에 대한 이해

Facebook은 ‘프로필’, ‘페이지’, ‘그룹’의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프로필’은 Facebook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인공간으로 개인정보 설정에 따라 글의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최대 5,000명의 친구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사진, 동영상 등을 무제한으로 공유할 수 있다. Facebook ‘페이지’는 단체, 기업, 공인 등을 대표할 수 있는 관리자가 운영할 수 있는 퍼블릭 프로필로 게시물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된다. 사용자는 ‘좋아요(like)’버튼을 클릭해서 쉽게 페이지의 게시물을 뉴스피드에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Facebook 앱을 개발해 페이지에 다양한 기능을 덧붙일 수 있다. ‘그룹’은 소규모의 모임에 가장 적합한 도구이다. 공유 문서도구를 이용해서 함께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룹 채팅을 실시간으로 나누거나, 사진 및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공개, 비공개, 비밀그룹으로 모임의 목적에 따라 공개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sup>1</sup> 최근 한 달 동안 그 사이트를 적어도 한번 이상 방문한 사용자.

<sup>2</sup> Wikipedia, “Facebook” 항목, (2018년 2월 19일 확인).

Facebook 은 학습자들의 활발한 토론과 상호작용을 도와주며 메시지와 대화를 통해 친근감과 소속감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라 하였고<sup>3</sup>, 대학의 이러닝(E-Learning)프로젝트 학습 시에 Facebook 을 활용한 결과 학습자가 인식한 만족도와 유용성은 긍정적이었으며, 시대적으로 적절한 교육매체라고 하였다.<sup>4</sup> Facebook 이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과 협력, 친밀감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며, 학습에 관한 공지나 관리적인 측면을 제공함에 따라 어휘 학습 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한 학습 도구로 활용 가능성을 알 수 있다.<sup>5</sup>

즉 비고츠키가 말한 사회문화적 환경 요소들을 교실 밖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제공해 줌으로써 현존하는 이러닝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실재적(authentic) 학습 환경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 Facebook 을 활용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인 Facebook 공간에서의 통성경공부는 더 빠르고, 폭넓게 통성경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 Facebook의 ‘그룹’ (Group) 만들기

Facebook 의 기능 가운데 ‘그룹’ 의 기능은 포털의 ‘카페’ 기능과 유사하지만 휴대폰같은 모바일 기기에서 접근하기에 더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

<sup>3</sup> 김소영, “소셜네트워크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제 28 권 제 4 호, 2012.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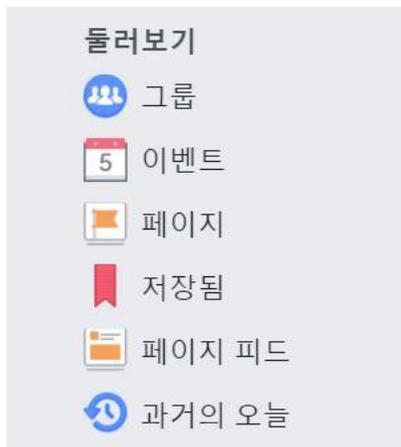
<sup>4</sup> 이종연, “대학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25 집 1 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93-123.

<sup>5</sup> 이미림, “Facebook 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학습 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2016), 33.

주로 자신의 Facebook 친구를 중심으로 멤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초청된 멤버들에 의해서 그들의 친구들이 초청되어 내가 만든 그룹의 멤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 그룹의 멤버가 내 친구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더 다양하고, 넓어진 멤버로 구성되는 것도 가능하다. 성경과 복음의 확산 과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다. 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룹은 멤버들로, 그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멤버들로 채워지는 그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그룹의 특성이 통성경 읽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확산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Facebook 의 그룹을 그 도구로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Facebook 에서 ‘그룹’ 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cebook 메인 페이지 좌측의 둘러보기 항목 아래 ‘그룹’ 을 클릭한다.

<그림 1> 그룹만들기 준비



그러면 <그림 2>와 같은 페이지가 열린다. ‘+그룹 만들기’ 를 클릭한다.

<그림 2> 그룹 만들기 1



<그림 3>과 같이 ‘새 그룹 만들기’ 라는 페이지가 열린다. 거기에 그룹 이름을 입력하고, 멤버가 될 사람을 이름 또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다. 공개 범위는 공개그룹<sup>6</sup>, 비공개 그룹<sup>7</sup>, 비밀 그룹<sup>8</sup>으로 설정할 수 있다. ‘만들기’ 를 클릭하면 그룹의 메인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이제 이 메인 페이지에서 멤버를 추가하고, 그룹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림과 설명으로 그룹의 메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림 3> 그룹만들기 2

<sup>6</sup> 누구나 그룹과 그룹 멤버 및 게시물을 볼 수 있다.

<sup>7</sup> 누구나 그룹과 그룹 멤버를 볼 수 있으나 게시물은 그룹 멤버만 볼 수 있다.

<sup>8</sup> 그룹 멤버만 그룹과 게시물을 볼 수 있다.

### Facebook의 그룹에서 강의의 예시

Facebook 에서 “성경전체를 통(通)으로” 라는 제목의 그룹이 만들어졌다.<sup>9</sup>

이제 위의 <그림 4>에서 좌측에 있는 ‘토론’ 을 클릭하면 원하는 글과 사진, 파일(음성 및 영상, 문서 등)을 올릴 수 있다.

<그림4> Facebook 그룹 첫 시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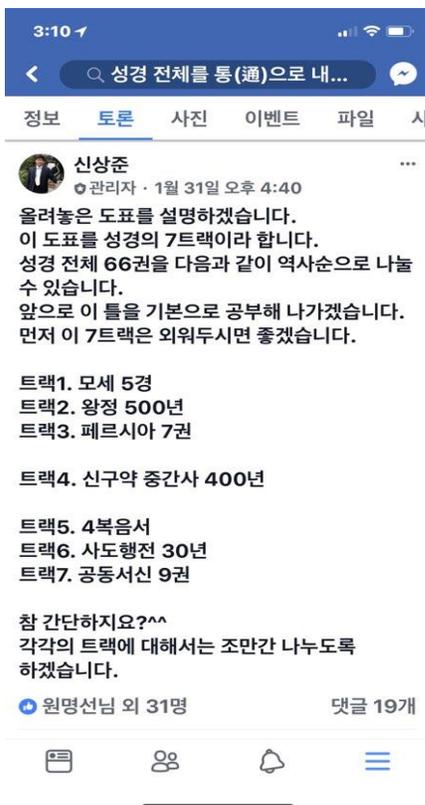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5> ~ <그림 8>은 Facebook 그룹에 강의와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하여 실제로 진행했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다. <그림 5>는 컴퓨터에 띄워 놓은 화면이고, <그림 6>은 스마트폰에서 실행한 화면이다.

<sup>9</sup> ‘성경전체를 통으로’라는 Facebook 그룹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www.facebook.com/groups/166746487295589/> (2018년 3월 현재).

<그림5> 통성경 강의 예시1(컴퓨터 화면)



<그림6> 통성경 강의 예시2(스마트폰 화면)



<그림7> 통성경 강의 예시3(그림파일)

**신상준** 관리자 · 2월 15일 오후 4:59

하나님의 마음 20에 따른 성경통독 범위를 올려드립니다. 이 범위에 따라서 20주, 10주 또는 5주에 1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자가 어디까지 끊어 일을 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1년 10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5주에 1번 읽는 범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통독범위의 순서를 따라서 읽으시면 성경전체를 역사 순서대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 7트랙     | 하나님의 마음 읽기 20   | 주  | 통독 범위  |
|---------|-----------------|----|--|
| 모세5권    | 하나님의 마음         | 1  | 창세기  |
|         | 열방을 향한 꿈        | 1  |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1장~10:10   |
|         | 만나세대            | 2  | 민수기10:11~36장, 신명기, 시편 90편  |
| 왕정500년  | 신약계승            | 주  |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
|         | 천년모범            | 3  | 삼위일상하, 열왕기상1~2장  |
|         | 마음과 지혜          | 3  | 열왕기상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
| 페르시아7권  | 사랑의 줄 사명의 줄     | 4  | 열왕기상12~22장, 열왕기하1~14장, 아모스, 오세아, 요나,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
|         | 열방 앞에 선 회향      | 주  | 열왕기하21~23장, 스바냐, 허박국, 나훬, 요엘, 열왕기하24~25장, 에레미야, 에레미야애가, 오바다            |
|         | 질계, 회향의 디딤돌     | 5  | 에스겔, 다니엘   |
| 중간사400년 | 재건 공중제          | 3  | 에스라1~4장, 학개, 스가랴, 에스라5~6장, 에스더, 에스라7~10장, 시편119편, 느헤미야, 말라기            |
|         | '이말개'와 '이말개' 사이 | 6  |  |
| 4복음서    | 기쁨을 위한 탄생       | 주  | 마태복음   |
|         | 한 영혼 사랑         | 주  | 마가복음   |
|         | 용서를 향한 열정       | 주  | 누가복음   |
|         |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 4  | 요한복음   |
| 사도행전30년 | 열리는 제자 시대       | 주  | 사도행전1~12장  |
|         |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9  | 사도행전13~18:22,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18:23~19장, 고린도전후서                   |
|         | 준비된 면류관 넘겨진 부활  | 주  | 사도행전20~26장, 로마서, 사도행전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
| 공동서신9권  |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10 |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
|         | 미리 견뎌받은 승리의 노래  | 주  |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

좋아요 댓글 달기

이평순님, 황미경님 외 16명

신상준 이들을 기본으로 앞으로의 성경통독 성경공부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림8> 통성경 강의 예시4(음악파일)

**신상준**님이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관리자 · 2월 13일 오후 4:15

하나님의 마음 20개를 노래로 만든 것입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올려 드립니다. 맘에 드는 것으로 들으시면서 계속 흥얼거려 보세요. 온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꿰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통통성경노래 ver.1.wav**  
오디오

다운로드 새 버전 업로드

좋아요 댓글 달기

Sieun Kim님, 정봉모님 외 13명

댓글 1개 더 보기

**나숙자**  
나숙자  
좋아요 · 답글 달기 · 1주

**류지은 노래까지~~ ㅎㅎ**  
류지은 노래까지~~ ㅎㅎ  
좋아요 · 답글 달기 · 1주

신상준님이 답글을 남겼습니다 · 답글 1개

댓글을 남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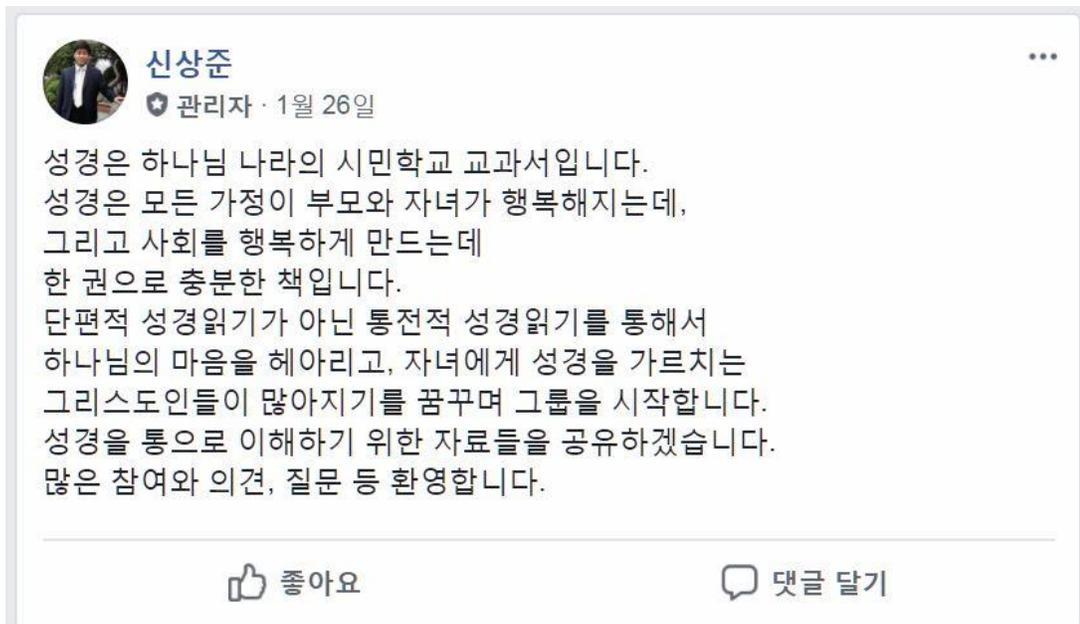
## 제 IV 장

### Facebook에서 통성경 기반의 성경통독

#### Facebook 통성경 성경통독의 시작

앞 장에서 ‘성경전체를 통으로’ 라는 Facebook 그룹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 기반으로 통성경 강의를 진행하면서 성경통독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과정들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그림은 통성경이 통성경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룹 멤버들과의 첫 만남의 글이다.

<그림9> 그룹을 만들고 첫 만남의 글



## 통(通)성경이란 무엇인가?

조병호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소책자에서 통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시간•공간•인간을, 개인•가정•나라를, 제사장 나라•5대 제국•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통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가정에서 5세부터 가르치는 것이 통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sup>1</sup>

이 명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Facebook 통성경 강의에 올려 놓았다.

### 시간, 공간, 인간을 통(通)으로

성경에는 대략 2,000 년의 시간과 1,500 곳의 공간, 그리고 5,000 여 명의 인간이 들어 있다. 성경에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 년의 시간이 세로축인 통시로 들어 있다. 그리고 성경 속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절기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명절이 반복되며, 또한 주전 8세기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등 동시대 사람들의 시간이 가로축인 공시로 들어 있다. 성경에는 1,500 곳의 공간이 들어 있다. 성경 속 공간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지정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된 곳이다. 성경은 5,000 명의 인간을 담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제자들과 바울 등이 있다. 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 여로보암, 하나냐 그리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있다. 성경 속 절기 이야기는 시간인 동시에 절기가 행해지는 공간이 있고, 그 시간과 공간에는 인간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sup>1</sup>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36.

2,000 년의 시간, 1,500 곳의 공간, 5,000 명의 인간을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sup>2</sup>

#### 개인, 가정, 나라를 통(通)으로

모세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갈대 상자를 타게 된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인 동시에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어머니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태우고, 누나는 나일강으로 흘러가는 갈대 상자의 망을 보는 완벽하게 뜻이 잘 맞았던 모세의 가정 이야기기도 하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으로 띄워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그 가정이 민족은 이루고 있으나 ‘나라’ 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세 이야기 속에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가 모두 들어 있다. 성경 속 개인, 가정, 나라 이야기를 함께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sup>3</sup>

####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종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닌 제사장 나라로 살도록 아브라함으로 후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5대 제국(앗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을 사용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 에스라는

---

<sup>2</sup> Ibid., 30.

<sup>3</sup> Ibid., 31-32.

페르시아 제국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기에 제국에 대해서 알아야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제사장 나라와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사이에 연관성을 보지 못한다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를 통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sup>4</sup>

또한 조병호는 통성경 읽기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sup>5</sup> 이 제안을 Facebook 에 올린 것은 다음 <그림 10>과 같다.

---

<sup>4</sup> Ibid., 34.

<sup>5</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10-11.

## &lt;그림10&gt; 통성경 방법으로 성경읽기



**신상준**  
관리자 · 1월 30일

...

성경은...?

- 성경은 얇은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어야 합니다.  
 찬송가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요21:25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알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입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 성경은 1년에 10번 통독할 책입니다.  
 이제는 하루 3장, 주일 5장의 성경읽기 틀을 바꿉시다. 1년에 1번 읽어서는 성경의 내용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루 1시간 30분 읽으면 1년에 10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경을 역사 순으로 읽어야 합니다.
-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스폰 마음 끝을 따라가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2,000년의 시간, 1,500여 공간, 5,000여 인간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신 내용부터 가정, 그리고 제사장 나라, 5대 제국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위의 5가지를 나 자신과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과제로 삼아보면 어떻겠습니까.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희망은 성경입니다.  
 이 곳에서 성경통독운동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 민족이 변화되는 꿈을 함께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

👍 좋아요

💬 댓글 달기

통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인 1년에 10 번을 통독하되 역사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음 표를 함께 첨부하여 제안하였다. 또한 멤버들이 이 표를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로도 올려 놓았다. 그 파일이 다음의 <표 5>이며,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파일이 아래의 <그림 11>이다. .

<표5> 1년 10번 역사순 성경듣기(읽기) 체크표

| 역사순 (일년일독 통독성경) - 구약 |          |                |    | ※ 순서는 10일 분량씩 나누어 보기 ※ 횟수는 (正)로 표기 |          |                |    |
|----------------------|----------|----------------|----|------------------------------------|----------|----------------|----|
| 순서                   | 일        | 범위             | 횟수 | 순서                                 | 일        | 범위             | 횟수 |
| 1                    | 1~10일    | 창 1~30장        |    | 20                                 | 191~200일 | 사 51장~나 3장     |    |
| 2                    | 11~20일   | 창 31~출 7장      |    | 21                                 | 201~210일 | 욥 1장~렘 28장     |    |
| 3                    | 21~30일   | 출 8~34장        |    | 22                                 | 211~220일 | 렘 29장~애 2장     |    |
| 4                    | 31~40일   | 출 35장~레 22장    |    | 23                                 | 221~230일 | 애 3장~대상 26장    |    |
| 5                    | 41~50일   | 레 23장~민 17장    |    | 24                                 | 231~240일 | 대상 27장~대하 31장  |    |
| 6                    | 51~60일   | 민 18장~신 6장     |    | 25                                 | 241~250일 | 대하 32장~겔 24장   |    |
| 7                    | 61~70일   | 신 7장~시 90편     |    | 26                                 | 251~260일 | 겔 25장~단 2장     |    |
| 8                    | 71~80일   | 수 1장~삿 5장      |    | 27                                 | 261~270일 | 단 3장~속 14장     |    |
| 9                    | 81~90일   | 삿 6장~삼상 10장    |    | 28                                 | 271~280일 | 스 5장~말 4장      |    |
| 10                   | 91~100일  | 삼상 11장~삼상 31장  |    | <b>역사순 (일년일독 통독성경) - 신약</b>        |          |                |    |
| 11                   | 101~110일 | 삼하 1~22장       |    | 29                                 | 281~290일 | 마 1장~막 3장      |    |
| 12                   | 111~120일 | 삼하 23장~잠 20장   |    | 30                                 | 291~300일 | 막 4장~눅 10장     |    |
| 13                   | 121~130일 | 잠 21장~욘 3장     |    | 31                                 | 301~310일 | 눅 11장~요 11장    |    |
| 14                   | 131~140일 | 욘 4~42장        |    | 32                                 | 311~320일 | 요 12장~행 15:35  |    |
| 15                   | 141~150일 | 시 1~85편        |    | 33                                 | 321~330일 | 행 15:36~고전 14장 |    |
| 16                   | 151~160일 | 시 86편~왕상 16:20 |    | 34                                 | 331~340일 | 고전 15장~행 23장   |    |
| 17                   | 161~170일 | 왕상 16:21~암 9장  |    | 35                                 | 341~350일 | 행 24장~딤후 4장    |    |
| 18                   | 171~180일 | 호 1장~사 17장     |    | 36                                 | 351~360일 | 히 1장~계 3장      |    |
| 19                   | 181~190일 | 사 18~50장       |    | 37                                 | 361~365일 | 계 4~22장        |    |

**역사순 1년 10번 성경듣기 체크표**

하루에 1시간이면 1년에 10번 역사순으로 성경 권대를 들을 수 있다!

| 듣기 횟수 | 시작일 | 마침일 |
|-------|-----|-----|
| 1번    |     |     |
| 2번    |     |     |
| 3번    |     |     |
| 4번    |     |     |
| 5번    |     |     |
| 6번    |     |     |
| 7번    |     |     |
| 8번    |     |     |
| 9번    |     |     |
| 10번   |     |     |
| more  |     |     |

<그림11> 파일로 올린 1년 10번 역사순 성경듣기(읽기) 체크표

 **신상준**님이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

🌟 관리자 · 2월 2일

역사 순서대로 읽을 수 있는 성경통독표를 올립니다. 1년에 1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몇 단원씩 읽느냐에 따라 통독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으시면 성경안에 쓱~ 들어갑니다.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통독표.pdf**  
PDF

[다운로드](#) [미리 보기](#) [새 버전 업로드](#)

👍 좋아요
💬 댓글 달기

## 통성경에서의 성경통독은 무엇인가?

통성경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곧 통의 구체적 방법론을 성경 읽기에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성경의 방법을 적용하여 전문성을 갖춘 형태로 변화, 발전시킨 것을 ‘성경통독’이라 한다.<sup>6</sup>

성경통독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이다.

통독은 오래 전부터 동양에서 배움을 위해 사용했던 방법인데,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매일 몇 절씩 묵상(큐티)하는 것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보게 되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이에 성경 66 권 전체를 1 권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성경에는 철학, 문학, 역사, 전기도 있고, 삶과 죽음, 나눔과 실천, 전쟁과 승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들이 있다. 성경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에는 관심 없이, 자기가 보고싶은 구절만 찾아서 읽는다면 성경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반복하여 읽어나가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 성경 몇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큰 무게로 다가 온다.<sup>7</sup>

<sup>6</sup>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169.

<sup>7</sup>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22-24.

성경통독은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이다.

지금 성경의 배열순서는 장르별로 되어 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흐름에 따라 읽어 나가게 되면 역사 속에서 세계를 경영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다.<sup>8</sup> 그래서 성경은 어렵고,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성경통독은 이러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읽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권들이 갖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역사 순서로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려 그 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 성경 이야기의 시간,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가장 잘 정돈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읽기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이다.<sup>9</sup>

성경통독의 목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성경통독은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 단어, 구절, 문장을 읽으면서 66 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읽어 가야 한다. 부분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가 아니라 오해할 수 있다. 성경통독은 성경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

<sup>8</sup> Ibid., 25. 예를 들어 느헤미야는 역사서인 역대기와 에스라 뒤에 나온다. 그리고 느헤미야 뒤로는 에스더와 시가서 5 권과 이사야가 있고, 그 뒤에 예레미야가 나온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읽으면 역사적 사건들이 뒤죽박죽되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역사적 순서를 따라 예레미야를 먼저 읽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읽어야 역사 흐름에 따라 읽게 되고, 비로소 그 내용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sup>9</sup> Ibid., 24-26.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도 맺어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럴 때 성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된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깊고 놀라운 책이다. 성경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일이 어려울 때나, 잘 됐을 때나, 책망을 받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언제든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성경 안에서 갈 길을 찾을 수 있다.<sup>10</sup>

다음 <그림 12>는 위의 내용으로 진행한 통성경에서의 성경통독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Facebook 에 올린 것이다.

---

<sup>10</sup> Ibid., 27-28.

## &lt;그림 12&gt; 성경통독은?



**신상준**  
관리자 · 2월 6일 · 제주도 제주

...

성경통독은?

1. 성경통독은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 것입니다.
  - 매일 몇 절씩 묵상(큐티)하는 것으로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부분만 계속 보게 되어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반복하여 읽는 것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66권 전체를 1권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반복하여 읽어 나가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성경 몇 구절이 주는 메시지가 있고, 각 권이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큰 무게로 다가 옵니다.
  - 성경에는 철학, 문학, 역사, 전기도 있고, 삶과 죽음, 나눔과 실천, 전쟁과 승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에는 관심 없이, 자기가 보고싶은 구절만 찾아서 읽는다면 성경의 놀라운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2. 성경통독은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입니다.
  - 지금 성경의 배열순서는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 흐름에 따라 읽어 나가게 되면 역사 속에서 세계를 경영해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렵고,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 성경통독은 이러한 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하여 읽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의 각 권들이 갖는 저마다의 역사적인 순차성을 고려하여 역사 순서로 재배열하여 읽는다면, 성경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살아 숨 쉬는 말씀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며,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려 그 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 성경 이야기의 시간, 공간 흐름의 기초, 사람들 이야기의 기초, 사건의 관계와 의미에 관한 기초를 가장 잘 정돈하여 살펴볼 수 있는 읽기 방법이 바로 성경통독입니다.
3. 성경통독의 목적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 성경통독은 말씀의 지식을 얻기 위한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어, 구절, 문장을 읽으면서 66권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읽어가야 합니다. 부분만 보아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가 아니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은 성경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도 맺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펼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됩니다.
  - 성경은 알면 알수록 깊고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일이 어려울 때나, 잘 났을 때나, 책망을 받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언제든지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성경 안에서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놀라운 책을 소중히 공부합니다. 우리 인생이 시작하는 그 날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되 통독하기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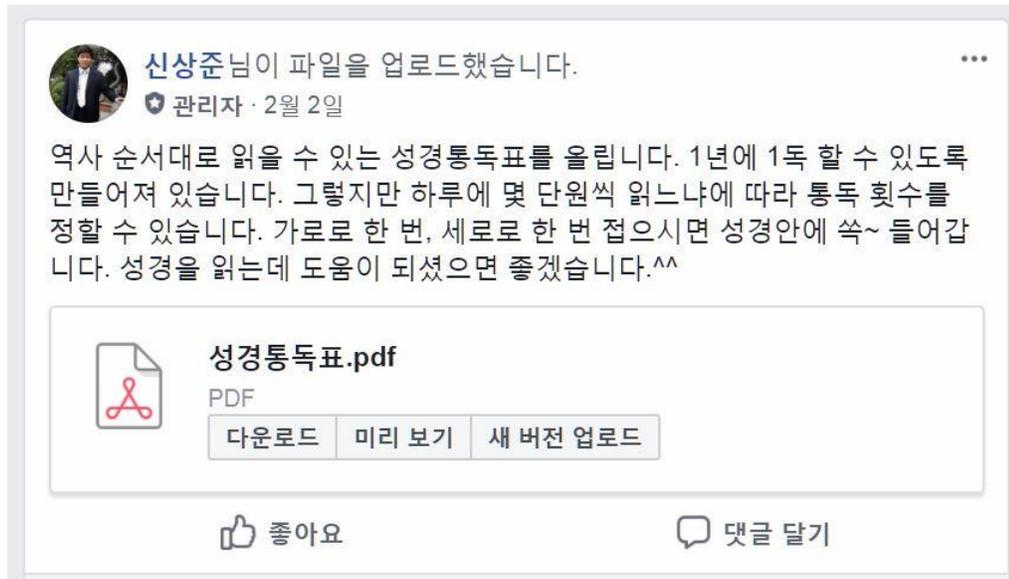
 좋아요

 댓글 달기

Facebook 에서의 통성경 강의를 여기까지 진행하고 난 뒤에 성경 전체를 1년에 1번을, 성경의 역사적 흐름에 맞추어서 읽을 수 있는 아래의 성경통독 표를 올려서 멤버들로 하여금 참고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표 6>은 위의 <표 5>와 함께 성경읽는 진도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멤버들로 하여금 두 표 중에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여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게 하였다.

특히 <표 6>은 자기 스스로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을 것인가를 정할 수 있게 하였다. 하루에 제시된 본문을 1개씩 읽으면 1년에 1독이 가능하고, 2개씩 읽으면 2독, 3개씩 읽으면 3독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10개씩 읽으면 목표로 하는 1년 10독을 할 수 있다. 이 표는 1년 1독 통독성경의 순서를 따랐다.<sup>11</sup> 아래의 <표 6> 또한 멤버들이 출력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Facebook 에 파일로 올려 놓았다.

<그림 13> 1년 1독 성경통독표



<sup>11</sup> 조병호 발행, **일년 일독 통독성경** (서울: 통독원, 2011).

<표 6> 1년 1독 성경통독표

본 통독표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역사 흐름대로 성경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일년일독 성경통독표**

1 하루에 1개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2 하루에 10개씩 읽으면 1년에 10독을 할 수 있습니다.  
 3 하루에 몇 개씩 읽느냐에 따라 통독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그의 시편을 함께 읽고, 솔로몬의 삶과 그 기쁜 잠언, 전도서, 아기를 함께 읽고, 열왕기사와 예언서들을 함께 읽고,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과 그때 썼던 서신서를 함께 읽으시면 성경의 흐름이 쉽게 이해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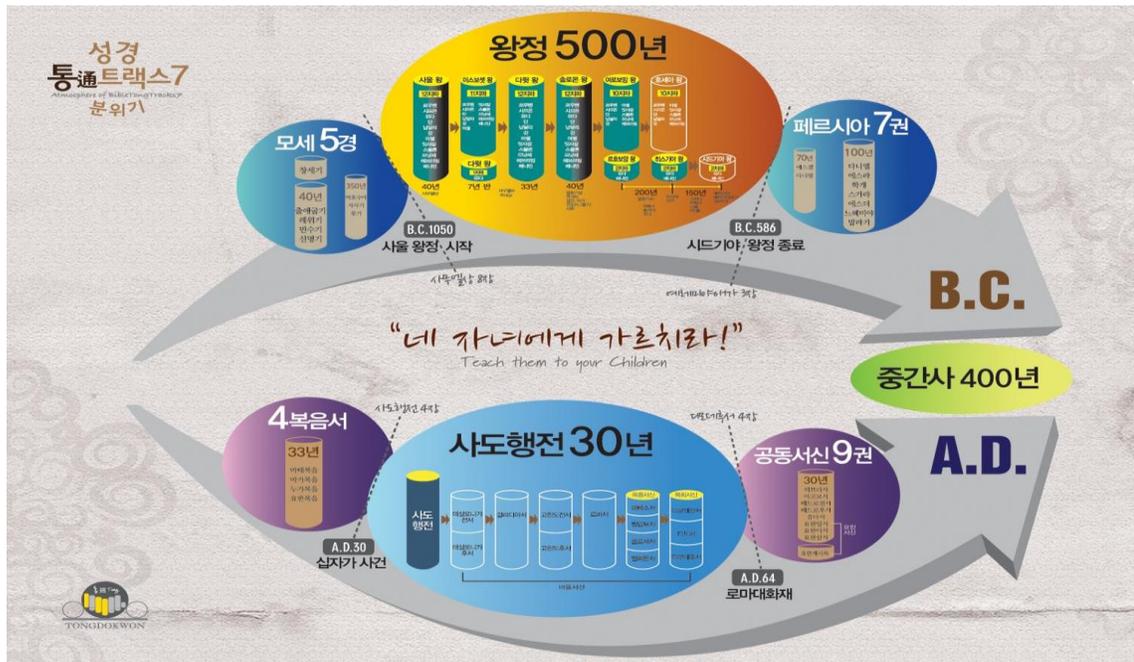
| 순서 | 구약범위    | 순서 | 구약범위       | 순서  | 구약범위     | 순서  | 구약범위        | 순서  | 구약범위               |
|----|---------|----|------------|-----|----------|-----|-------------|-----|--------------------|
| 1  | 창1~2장   | 36 | 레11~13장    | 71  | 수1~2장    | 106 | 삼하13~14장    | 141 | 시1~2, 4~9편         |
| 2  | 창3~5장   | 37 | 레14~15장    | 72  | 수3~5장    | 107 | 삼하15장, 시3편  | 142 | 시10~18편            |
| 3  | 창6~9장   | 38 | 레16~17장    | 73  | 수6~8장    | 108 | 삼하16~17장    | 143 | 시19~27편            |
| 4  | 창10~11장 | 39 | 레18~20장    | 74  | 수9~12장   | 109 | 삼하18~20장    | 144 | 시28~33편            |
| 5  | 창12~14장 | 40 | 레21~22장    | 75  | 수13~17장  | 110 | 삼하21~22장    | 145 | 시35~41편            |
| 6  | 창15~17장 | 41 | 레23~25장    | 76  | 수18~19장  | 111 | 삼하23~24장    | 146 | 시42~50, 53편        |
| 7  | 창18~21장 | 42 | 레26~27장    | 77  | 수20~22장  | 112 | 왕상1~2장      | 147 | 시55~56, 58, 60~66편 |
| 8  | 창22~24장 | 43 | 민1~2장      | 78  | 수23~24장  | 113 | 왕상3~4장      | 148 | 시67~72편            |
| 9  | 창25~27장 | 44 | 민3~4장      | 79  | 삿1장~2:10 | 114 | 왕상5~7장      | 149 | 시73~78편            |
| 10 | 창28~30장 | 45 | 민5~6장      | 80  | 삿2:11~5장 | 115 | 왕상8장        | 150 | 시79~85편            |
| 11 | 창31~33장 | 46 | 민7~8장      | 81  | 삿6~7장    | 116 | 왕상9~10장     | 151 | 시86~89편            |
| 12 | 창34~36장 | 47 | 민9장~10:10  | 82  | 삿8~9장    | 117 | 왕상1~5장      | 152 | 시91~102편           |
| 13 | 창37~38장 | 48 | 민10:11~12장 | 83  | 삿10~12장  | 118 | 왕상6~9장      | 153 | 시103~106편          |
| 14 | 창39~41장 | 49 | 민13~14장    | 84  | 삿8~9장    | 119 | 왕상10~15장    | 154 | 시107~118편          |
| 15 | 창42~44장 | 50 | 민15~17장    | 85  | 삿17~18장  | 120 | 왕상16~20장    | 155 | 시119편              |
| 16 | 창45~47장 | 51 | 민18~19장    | 86  | 삿19~21장  | 121 | 왕상21~24장    | 156 | 시120~134편          |
| 17 | 창48~50장 | 52 | 민20~21장    | 87  | 삿1~4장    | 122 | 왕상25~29장    | 157 | 시135~142편          |
| 18 | 출1~2장   | 53 | 민22~25장    | 88  | 삿5장      | 123 | 왕상30~31장    | 158 | 시143~150편          |
| 19 | 출3~4장   | 54 | 민26~27장    | 89  | 삿5장      | 124 | 왕상32~33장    | 159 | 왕상12~14장           |
| 20 | 출5~7장   | 55 | 민28~30장    | 90  | 삿5장      | 125 | 왕상34~35장    | 160 | 왕상15장~16:20        |
| 21 | 출8~10장  | 56 | 민31~32장    | 91  | 삿5장      | 126 | 왕상16:21~17장 | 161 | 왕상16:21~17장        |
| 22 | 출11~13장 | 57 | 민33~36장    | 92  | 삿5장      | 127 | 왕상18~19장    | 162 | 왕상18~19장           |
| 23 | 출14~15장 | 58 | 민37~40장    | 93  | 삿5장      | 128 | 왕상20~22장    | 163 | 왕상20~22장           |
| 24 | 출16~18장 | 59 | 민41~42장    | 94  | 삿5장      | 129 | 왕상23~24장    | 164 | 왕상23~24장           |
| 25 | 출19~20장 | 60 | 민43~44장    | 95  | 삿5장      | 130 | 왕상25~26장    | 165 | 왕상25~26장           |
| 26 | 출21~23장 | 61 | 민45~46장    | 96  | 삿5장      | 131 | 왕상27~28장    | 166 | 왕상27~28장           |
| 27 | 출24~27장 | 62 | 민47~48장    | 97  | 삿5장      | 132 | 왕상29~30장    | 167 | 왕상29~30장           |
| 28 | 출28~29장 | 63 | 민49~50장    | 98  | 삿5장      | 133 | 왕상31~32장    | 168 | 왕상31~32장           |
| 29 | 출30~31장 | 64 | 민51~52장    | 99  | 삿5장      | 134 | 왕상33~34장    | 169 | 왕상33~34장           |
| 30 | 출32~34장 | 65 | 민53~54장    | 100 | 삿5장      | 135 | 왕상35~36장    | 170 | 왕상35~36장           |
| 31 | 출35~38장 | 66 | 민55~56장    | 101 | 삿5장      | 136 | 왕상37~38장    | 171 | 왕상37~38장           |
| 32 | 출39~40장 | 67 | 민57~58장    | 102 | 삿5장      | 137 | 왕상39~40장    | 172 | 왕상39~40장           |
| 33 | 레1~5장   | 68 | 민59~60장    | 103 | 삿5장      | 138 | 왕상41~42장    | 173 | 왕상41~42장           |
| 34 | 레6~7장   | 69 | 민61~62장    | 104 | 삿5장      | 139 | 왕상43~44장    | 174 | 왕상43~44장           |
| 35 | 레8~10장  | 70 | 민63~64장    | 105 | 삿5장      | 140 | 왕상45~46장    | 175 | 왕상45~46장           |

| 순서  | 구약범위             | 순서  | 구약범위           | 순서  | 신약범위    | 순서  | 신약범위    | 순서    | 신약범위       |
|-----|------------------|-----|----------------|-----|---------|-----|---------|-------|------------|
| 176 | 왕하17장~18:12      | 211 | 렘29~31장        | 246 | 골12~14장 | 281 | 마1~4장   | 351   | 히1~4장      |
| 177 | 사1~3장            | 212 | 렘32~33장        | 247 | 골15~17장 | 282 | 마5~7장   | 352   | 히5~10장     |
| 178 | 사4~7장            | 213 | 렘34~36장        | 248 | 골18~20장 | 283 | 마8~10장  | 353   | 히11~13장    |
| 179 | 사8~12장           | 214 | 렘37~38장        | 249 | 골21~22장 | 284 | 마11~13장 | 354   | 약1~5장      |
| 180 | 사13~17장          | 215 | 왕하25장, 렘39~41장 | 250 | 골23~24장 | 285 | 마14~16장 | 355   | 벧전1~5장     |
| 181 | 사18~20장          | 216 | 렘42~45장        | 251 | 골25~28장 | 286 | 마17~20장 | 356   | 벧후1~3장     |
| 182 | 사21~24장          | 217 | 렘46~48장        | 252 | 골29~32장 | 287 | 마21~23장 | 357   | 유1장        |
| 183 | 사25~29장          | 218 | 렘49~50장        | 253 | 골33~35장 | 288 | 마24~25장 | 358   | 요일1~5장     |
| 184 | 사30~35장          | 219 | 렘51~52장        | 254 | 골36~37장 | 289 | 마26~28장 | 359   | 요이1장, 요삼1장 |
| 185 | 왕하18:13~37, 사36장 | 220 | 애1~2장          | 255 | 골38~39장 | 290 | 막1~3장   | 360   | 계1~3장      |
| 186 | 왕하19장, 사37장      | 221 | 애3~5장          | 256 | 골40~41장 | 291 | 막4~6장   | 361   | 계4~7장      |
| 187 | 왕하20장, 사38~39장   | 222 | 욥1장            | 257 | 골42~43장 | 292 | 막7~8장   | 362   | 계8~11장     |
| 188 | 사40~42장          | 223 | 대상1~3장         | 258 | 골44~46장 | 293 | 막9~10장  | 363   | 계12~15장    |
| 189 | 사43~45장          | 224 | 대상4~5장         | 259 | 골47~48장 | 294 | 막11~13장 | 364   | 계16~18장    |
| 190 | 사46~50장          | 225 | 대상6~9장         | 260 | 단1~2장   | 295 | 막14~16장 | 365   | 계19~22장    |
| 191 | 사51~55장          | 226 | 대상10~12장       | 261 | 단3~4장   | 296 | 눅1~2장   | 통독 1회 | 6회         |
| 192 | 사56~59장          | 227 | 대상13~16장       | 262 | 단5~6장   | 297 | 눅3~4장   | 2회    | 7회         |
| 193 | 사60~63장          | 228 | 대상17~20장       | 263 | 단7~9장   | 298 | 눅5~6장   | 3회    | 8회         |
| 194 | 사64~66장          | 229 | 대상21~22장       | 264 | 단10~12장 | 299 | 눅7~8장   | 4회    | 9회         |
| 195 | 미1~3장            | 230 | 대상23~26장       | 265 | 스1~2장   | 300 | 눅9~10장  | 5회    | 10회        |
| 196 | 미4~7장            | 231 | 대상27~29장       | 266 | 스3~4장   | 301 | 눅11~13장 |       |            |
| 197 | 왕하21~23장         | 232 | 대하1~4장         | 267 | 학1~2장   | 302 | 눅14~16장 |       |            |
| 198 | 슌1~3장            | 233 | 대하5~7장         | 268 | 속1~6장   | 303 | 눅17~18장 |       |            |
| 199 | 왕하1~3장           | 234 | 대하8~9장         | 269 | 속7~10장  | 304 | 눅19~20장 |       |            |
| 200 | 나1~3장            | 235 | 대하10~13장       | 270 | 속11~14장 | 305 | 눅21~22장 |       |            |
| 201 | 욥1~3장            | 236 | 대하14~17장       | 271 | 스5~6장   | 306 | 눅23~24장 |       |            |
| 202 | 왕하24장, 렘1~3장     | 237 | 대하18~22장       | 272 | 에1~5장   | 307 | 요1~3장   |       |            |
| 203 | 렘4~6장            | 238 | 대하23~25장       | 273 | 에6~10장  | 308 | 요4~6장   |       |            |
| 204 | 렘7~9장            | 239 | 대하26~28장       | 274 | 스7~8장   | 309 | 요7~8장   |       |            |
| 205 | 렘10~13장          | 240 | 대하29~31장       | 275 | 스9~10장  | 310 | 요9~11장  |       |            |
| 206 | 렘14~16장          | 241 | 대하32~33장       | 276 | 느1~3장   | 311 | 요12~13장 |       |            |
| 207 | 렘17~20장          | 242 | 대하34~36장       | 277 | 느4~7장   | 312 | 요14~15장 |       |            |
| 208 | 렘21~23장          | 243 | 겔1~3장          | 278 | 느8~10장  | 313 | 요16~17장 |       |            |
| 209 | 렘24~25장          | 244 | 겔4~7장          | 279 | 느11~13장 | 314 | 요18~19장 |       |            |
| 210 | 렘26~28장          | 245 | 겔8~11장         | 280 | 말1~4장   | 315 | 요20~21장 |       |            |

통트랙스 7

조병호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은 모세 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4 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이다.<sup>12</sup>

<그림14> 성경 통트랙스7



위의 그림을 ‘통트랙스 7’ 이라 한다. 성경 전체 66 권을 다음과 같이 역사순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Facebook 통성경 강의에서 성경 7트랙 각각의 분위기와 해당되는 책들의 주요 내용과 역할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다. 그리고 각 트랙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 트랙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를 통해서 구분과 연결점을 찾도록 하였다.

<sup>12</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1.

## &lt;그림15&gt; 성경 통트랙스7 도표 설명



**신상준**

★ 관리자 · 2월 1일 · 제주도 제주

...

도표의 설명을 이어갑니다.

각 트랙은 시대적 분위기가 바뀌는 사건을 경계로 구분됩니다.

모세5경에서 왕정500년으로 나누는 것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기를 끝내고, 사울이 왕으로 등극(B.C.1050, 삼상8장)하는 사건입니다.

왕정500년에서 페르시아7권을 나누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성이 함락(B.C.586, 렘3장)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 탄생 전까지 약 400년은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제국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계사를 통해서 살펴 볼 것입니다. 이 기간에 대해 성경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4복음서와 사도행전30년으로 나누는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A.D.30, 행4장).

사도행전30년과 공동서신9권을 나누는 사건은 로마대화재 사건(A.D.64, 딤후4)입니다. 로마에 일어났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이때부터 로마는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4개의 중요 사건들과 연도 정도는 기억해 두어도 좋겠지요?^^

---


좋아요


댓글 달기

위의 성경 통트랙스 7 강의중에 1, 2, 6 트랙에 대한 내용을 샘플로 올린 것이 아래의 <그림 15> ~ <그림 17>이다. 한 번에 1 트랙씩 올려서 해당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성경 통트랙스 7이 통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기에 강조하였다. 성경 통트랙스 전체 7개의 트랙의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 &lt;그림 15&gt; 성경 통트랙스 1에 대한 내용



**신상준**

관리자 · 2월 8일 · 제주도 제주

...

오늘부터는 성경의 7트랙을 1트랙씩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트랙1 모세 5경의 분위기 -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가 설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모세5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를 선택하셔서 레위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5경에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Kingdom of Priests)를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흥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번성케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19:5~6)

하나님께서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을 세우기로 결심한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는가?
- 왜 모세는 갈대상자를 타야만 했는가?

모세5경에서 왕정500년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요구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4~7

---

 좋아요

 댓글 달기

## &lt;그림16&gt; 성경 통트랙스 2에 대한 내용



**신상준**

📌 관리자 · 2월 9일

⋮

트랙2 왕정 500년 분위기 –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은 50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초대 왕 사울에 이어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120년간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분단된 채 200년을 보냈습니다. 200년간 한 민족, 두 국가로 보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함으로써 남유다만 남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50년을 더 유지하지만,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해 나라의 문을 닫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서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까지를 다룬 부분이 바로 왕정5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왕정의 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정500년이 이어집니다.

이 왕정500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를 두고 협력과 대립의 500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다음 두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
- 왜 예후 왕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새겨졌는가?

왕정500년에서 페르시아7권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예레미야가 슬픔을 오히려 소망으로 바꾸면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예레미야애가 3:19~23

---

 좋아요

 댓글 달기

## &lt;그림17&gt; 성경 통트랙스 6에 대한 내용



신상준

★ 관리자 · 2월 11일

트랙6 사도행전30년 분위기 -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체험한 열두 사도들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한 30년간의 역사 기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에서부터 로마 대화재 사건이 나기 전까지 30년간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과 완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 전파에 대해 지독하게 방해할 일삼은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기간이 사도행전30년입니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30년 동안 야고보와 스테반을 죽이고, 더 나아가 바울을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때렸는가?
- 왜 바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는가?

사도행전30년에서 공동서신9권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는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로마 제국의 박해로 국면 전환. 바울의 유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5~8

좋아요

댓글 달기

##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득하다.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한다.<sup>13</sup> 다음 <그림 18>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내용을 Facebook 에 올린 것이다.

<그림18> 제사장 나라

**신상준**  
관리자 · 2월 13일

성경에는 세상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 세우신 제사장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20개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전에 오늘과 내일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제사장 나라(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나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경제,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레26:8-10)

- 1.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양이 죽었습니다.(출12:21-22) 바로와의 9번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은 유월절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1년 된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살았습니다.
- 2.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7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 받았습니다.(레6:7)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다양한 제물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레5:7,11)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 3.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입니다. 연약한 이웃과의 나눔이 거룩입니다.(레19:9-10) 하나님의 율법은 인권과 복지에 관한 것까지 정리가 끝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법이며, 완벽한 법이었습니다. 룻기에서의 보아스는 이 법을 지키면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레23:22)
- 4.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레19:33-34) 에돔,모압,암몬,가나안과의 전쟁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창16:16)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앗수르, 바벨론에 심판 당했습니다.
- 5.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목숨 대신 어린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장자에서 제사장의 개념이 나왔습니다.(출25:22)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생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고, 대신에 12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였습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채팅(9)

<sup>13</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12.

##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경제, 국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sup>14</sup>

제사장 나라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시작한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양이 죽었다.<sup>15</sup> 바로와의 9 번에 걸친 협상이 결렬되자 하나님은 유월절 카드를 꺼내셨다. 1년 된 숫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의 장자는 살았다.<sup>16</sup>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이다.

5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sup>17</sup>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다양한 제물을 사용하게 하셨다. 어떻게 해서든 용서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다.<sup>18</sup>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sup>14</sup> 레 26:8-10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sup>15</sup> 출 12:21-22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sup>16</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56.

<sup>17</sup> 레 6:7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sup>18</sup> 레 5:7,11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비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감히 상상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릴 수도 없다.<sup>19</sup>

제사장 나라는 이웃 사이에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이다.

연약한 이웃과의 나눔이 거룩이다.<sup>20</sup> 하나님의 율법은 인권과 복지에 관한 것까지 정리가 끝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법이며, 완벽한 법이었다. 룻기에서의 보아스는 이 법을 지키면서 품위 있는 삶을 살았다.<sup>21</sup>

제사장 나라는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신 이유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sup>22</sup> 에돔, 모압, 암몬, 가나안과의 전쟁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sup>23</sup>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앗수르, 바벨론에 심판 당했다.<sup>24</sup>

<sup>19</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66.

<sup>20</sup> 레 19:9-10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sup>21</sup> 레 23:22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73.

<sup>22</sup> 레 19:33-34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sup>23</sup>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sup>24</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81.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이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의 목숨 대신 어린양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유월절에 목숨을 건진 장자에서 제사장의 개념이 나왔다.<sup>25</sup> 하나님께서는 12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셔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셨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 생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지 않았고, 대신에 12 지파가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였다.<sup>26</sup>

###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선민의식만 가지는 이상한 민족이 되어버렸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아닌, 오직 선민의식만 남은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이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쳤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요 1:29) 세례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 사건이 있은 지 1,500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친히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모든 사람의 죄를

---

<sup>25</sup> 민 3:40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sup>26</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90.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로 드려졌다.<sup>27</sup> 더 이상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건지셨다.<sup>28</sup>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다.<sup>29</sup>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sup>30</sup>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이 참새 두 마리보다, 양 한 마리보다, 돼지 2000 마리보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다.<sup>31</sup> 그렇게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을 위해 그 목숨을 내어 주셨다.

---

<sup>27</sup> 마 26:26-28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sup>28</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26.

<sup>29</sup> 마 6: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sup>30</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39.

<sup>31</sup> 막 8:36-37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감도 잡지 못할 것이다.<sup>32</sup>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대제사장을 통해 매년 청구하는 사면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한 번에, 영원히 받아내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 일로 아론으로 시작된 대제사장만이 누렸던 특권과 사명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던 제사장 나라의 완벽한 종료와 함께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인(sing)이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사장을 통한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sup>33</sup>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이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이다. 이는 성전이 교회로,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이어가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sup>34</sup>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sup>32</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36.

<sup>33</sup> *Ibid.*, 251.

<sup>34</sup> 고전 3:16-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끄는 동력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sup>35</sup>

### <그림19> 하나님 나라



**신상준**  
관리자 · 2월 14일

...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잘 감당하지 않으면서 선민의식만 가지는 이상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아닌, 오직 선민의식만 남은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종교인 '유대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는 너무 거리가 먼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1.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1:29) 세례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 사건이 있은 지 1,500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친히 유월절 어린양이 되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마26:26-28) 더 이상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의 생명을 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건지셨습니다.
2.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이 참새 두 마리보다, 양 한 마리보다, 돼지 2000마리보다,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막8:36) 그렇게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서는 한 영혼을 위해 그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는 감도 잡지 못할 것입니다.
4.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 매년 청구하는 사면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한 번에, 영원히 받아내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일로 아론으로 시작된 대제사장만이 누렸던 특권과 사명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었던 제사장 나라의 완벽한 종료와 함께 제사장 나라를 수렴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인(sing)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사장을 통한 제사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5. 하나님 나라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성전과 장자로 이끄는 나라였다면,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끄는 나라입니다. 이는 성전이 교회로, 장자가 제자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전의 기능을 이어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고전3:16-17)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동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 좋아요
💬 댓글 달기

<sup>35</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259.

## 하나님의 마음 20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기쁨, 슬픔, 분노, 근심, 사랑, 미움, 고통, 은유, 겸손 등) 직, 간접적으로 표현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셨다. 내가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 마음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 내 마음에만 머물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장면으로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 20 개의 제목을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통해서 나누고 난 다음에 이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통독원에서 제작한 노래를 악보와 음원 파일을 게재하여 좀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였다.

### <그림 20> 통성경 노래 음원 파일



<그림21> 통성경 노래 악보



『성경통독』 200여종의 제목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Lyrics Byoungho Zoh(작사 조병호)  
Composition Tong Orchestra(작곡 통오케스트라)

God ex-pre-sses his heart Dream for all na - tions Manna gene-ra - tion Suc- ce-ssion of - faith  
 하 나 님 의 마 음 열 방 을 향 한 꿈 만 나 세 대 신 앙 계 승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Model for a thousand years Mind and - wis - dom Line of love line of mi - ssion  
 천 년 모 범 마 음 과 지 혜 사 랑 의 줄 사 명 의 줄  
 삼상, 삼하, 왕상 1~2장 왕상 3~11장, 잠, 아, 전, 욥, 시 왕상 12~22장, 왕하 1~20장, 임, 호, 모, 사, 미

Hope - stan - ding be - fore des - pair Punishment a ste - pping - stone of hope  
 절 망 앞 에 선 회 망 징 계 회 망 의 디 디 돌  
 왕하 21~25장, 습, 합, 나, 율, 렘, 예, 욥, 대상, 대하 예스겔, 다니엘

A co - muni - ty of re - cons - truc - tion A blank page - full of his - to - ry A  
 재 건 공 동 체 어 땀 게 와 이 렇 게 사 이  
 스, 학, 속, 예, 느, 말 신구약 중간사

joy - ful - bir - th Love for - one - soul Pa - ssion to - wards for give - ness  
 기쁨 위 한 탄 생 한 영 혼 사 랑 응 서 를 향 한 열 - 정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In - vi - ta - tion to glo - ry and pea - ce The dis - ci - ple e - ra  
 영 광 과 평 화 로 의 초 대 열 리 는 제 자 시 대  
 요한복음 사도행전 1~12장

Extension of the gos-pel with no - boun-da-ries E - ter - nal - crown and - han - ded - down re - quest  
 경 계 를 넘 어 선 복 음 의 확 장 준 비 된 면 류 관 남 겨 진 부 탁  
 행 13~19장, 실전, 살후, 갈, 고전, 고후 행 20~28장, 롬, 열, 빌, 골, 몬, 딘전, 딘, 딘후

Le - tters for the - righ - teous fight and Song of vic - to - ry - pre - re - ceived  
 선 한 싸 움 을 위 한 편 지 미 리 받 은 승 리 의 노 래  
 히, 약, 빌전, 베후, 유 요일, 요이, 요삼, 계

또한 Facebook 그룹에 하나님의 마음 20 에 따른 성경통독 범위를 <표 7>로 올렸다. 이 범위에 따라서 20 주, 10 주 또는 5 주에 1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표 7> 하나님의 마음 20 에 따른 5 주간, 10 주간 성경통독범위

| 7트랙     | 하나님의 마음 읽기 20   | 주  | 통독 범위  |
|---------|-----------------|----|--|
| 모세5경    | 하나님의 마음         | 1  | 창세기<br>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1장~10:10<br>민수기10:11~36장, 신명기, 시편 90편<br>여호수아, 사사기, 룧기  |
|         | 열방을 향한 꿈        | 2  |  |
|         | 만나세대            | 2  |  |
|         | 신앙계승            | 2  |  |
| 왕정500년  | 천년모범            | 3  | 삼무열상·하, 열왕기상1~2장<br>열왕기상3~11장,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br>열왕기상12~22장, 열왕기하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br>열왕기하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열왕기하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댜  |
|         | 마음과 지혜          | 3  |  |
|         | 사랑의 줄 사명의 줄     | 4  |  |
|         | 절망 앞에 선 희망      | 4  |  |
| 페르시아7권  | 징계, 희망의 디딤돌     | 5  | 에스겔, 다니엘<br>에스라1~4장, 학개, 스가랴, 에스라5~6장, 에스더, 에스라7~10장, 시편119편, 느헤미야, 말라기  |
|         | 재건 공동체          | 5  |  |
| 중간사400년 |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 6  | 마태복음<br>마가복음<br>누가복음<br>요한복음<br>사도행전1~12장<br>사도행전13~18:22,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18:23~19장, 고리도전·후서<br>사도행전20~26장, 로마서, 사도행전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br>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br>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
| 4복음서    | 기쁨을 위한 탄생       | 7  |  |
|         | 한 영혼 사랑         | 7  |  |
|         | 용서를 향한 열정       | 7  |  |
| 사도행전30년 |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 8  |  |
|         | 열리는 제자 시대       | 9  |  |
|         |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9  |  |
| 공동서신9권  |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 9  |  |
|         |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10 |  |
|         |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  | 10 |  |

하나님의 마음 20 은 한번의 강의에 2 개씩 올려서 총 10 번의 강의에  
마치도록 진도를 잡았다. 아래 <그림 22> ~ <그림 23>는 Facebook 에 올린 강의이다.

### <그림22>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신상준**  
관리자 · 2월 20일 오후 2:56

...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연휴기간은 좀 쉬시라고 올리지 않았습니<sup>ㅏ</sup>.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20개로 정리해서 살펴볼까요? 각 단원  
에 해당하는 ()안의 성경 범위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의 마음(창) : 창조 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 하  
나님의 아픈 마음

- 창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  
나님은 인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6일 일하고, 7일  
째 안식은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 창6:5-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  
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께서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대상은 다른 피조  
물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입니다.
- 홍수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  
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순종의 땀으로 닦았습니다.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  
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 창22:12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라주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 기  
쁨의 극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이삭을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2000년 후 자신의 아들  
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주십니다.
- 아브라함의 유언은 이삭이 비전이 되었으며, 이삭의 유언은 야곱의 비전이  
되었고,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후손들에게 출  
애굽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꿈에는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2. 열방을 향해 꿈(출, 레, 민1장-10:10) :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해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마음

- 열방을 향한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고, 설득된 모세는 백성을 설득합니다.
- 출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  
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샘플이 되는 것입니  
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위해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 훈련이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꿈은  
훈련을 통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어졌습니다.  
아담,노아(생육하고 번성) - 아브라함(큰 민족, 이름을 창대) - 500년 후 시내산  
언약(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음시간은 만나세대, 신앙계승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 뵈겠습니  
다.<sup>ㅏ</sup>

👍 좋아요

💬 댓글 달기

💬 채팅(10)

<그림23>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신상준**  
관리자 · 2월 27일 오전 10:00

...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마27:32~28장, 막15:21~16장, 눅23:26~24장, 요19:17~21장)

- 계약과 관계의 신비(마27:32~56 막15:21~41 눅23:26~49 요19:17~37):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관계(사랑, 용서)와 계약(처벌, 정의,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계약과 관계, 처벌과 용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된 장소입니다.
- 영광으로의 초대(막27:57~28:15 막15:42~16:11 눅23:50~24:12 요19:38~20:18):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희망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진정한 승리, 가장 영원한 승리입니다.
- 평화를 위한 시작(마28:16~20 막16:12~20 눅24:13~53 요20:19~21장):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끄러움을 열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묵숨 다하여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6. 열리는 제자 시대(행1~12장)

- 교회, 사명과 축복의 통로(행1~5장): 만나세대도, 미스바세대도, 재건세대도 아쉽게 당대로 끝나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남긴 제자세대는 계속 이어져서 2천년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 온 인류를 향한 지상명령이었고, 그 유언은 재자들의 진정한 비전이었습니다.
- 비로소 깨달은 '함께'의 의미(행6~12장):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동체의 운영방안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선민과 이방인이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밝혀 오신 '함께'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대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기뻐합니다.

👍 좋아요
💬 댓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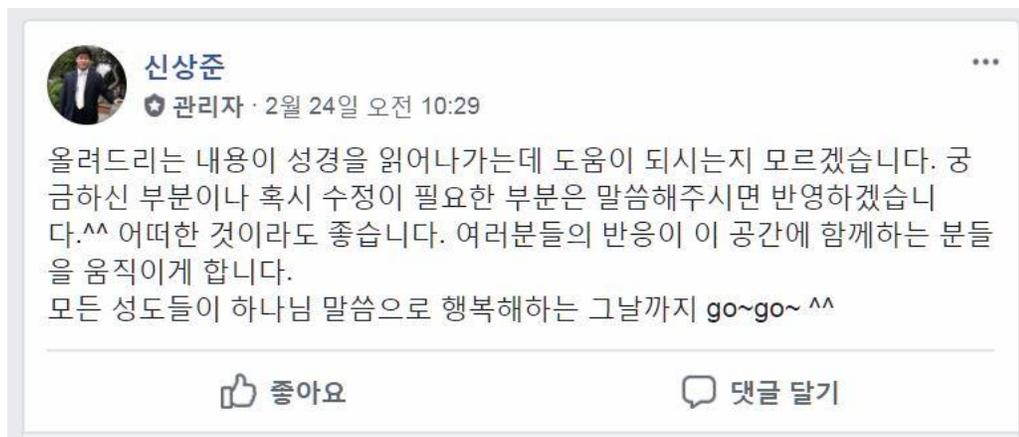
하나님의 마음 20의 전체 강의는 조병호의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의 내용과 틀을 가지고 정리하여 부록 2에 첨부하였다. 하나님의 마음 20에 대한 강의 내용 외에도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그림과 표를 사용하여 멤버들에게 제시하였다. 아래의 표는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의 전도여행과 바울서신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정리한 표이다.

&lt;표 8&gt; 사도행전과 서신서, 바울의 전도여행

| 사도행전          | 서신서                    | 사도바울의 전도여행            |
|---------------|------------------------|-----------------------|
| 행 13장~15:35   |                        | 사도바울의 1차 전도여행         |
| 행 15:36~18:22 |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 사도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및 서신서   |
| 행 18:23~19장   | 고린도전·후서                | 사도바울의 3차 전도여행 및 서신서   |
| 행 20~26장      | 로마서                    | 사도바울의 예루살렘·로마여행 및 서신서 |
| 행 27~28장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 사도바울의 로마에서의 옥중서신      |
|               |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 사도바울의 4차 전도여행과 목회서신   |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자칫 지루해 질 수도 있는 강의 사이 사이에 멤버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하고 있는 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은 없는지,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묻고 소통하며 쉬어 가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그림이 바로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다.

&lt;그림24&gt; 멤버들의 반응을 유도



## 성경 줄기 40

앞에서 살펴본 20 개의 하나님의 마음을 바탕으로 40 개의 성경 줄기로 성경 전체를 나누어 볼 수 있다.<sup>36</sup> 아래의 <그림 25> ~ <그림 26>은 성경 줄기를 Facebook 에 올린 강의 내용이다. 그리고 ‘성경 줄기 40’ 에 대한 전체 내용은 조병호의 통성경 길라잡이의 내용을 참고, 요약하여 부록 3 에 첨부하였다.

<그림25> 성경 줄기 강의 샘플1



**신상준**  
관리자 · 3월 6일 오전 10:40

...

성경 줄기 40 - 1  
성경 줄기 40을 시작합니다.

1. 원역사

-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고대사 이전의 원역사(primeval history)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초점으로 하여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통독합니다.
- 천지창조 : 각종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 먹되, 먹지 말라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 가인과 아벨 :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사건입니다. 바로 죄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 홍수 사건 : 한탄과 근심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인간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순종의 땀으로 닦아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노아의 가정에게 다시 주어집니다.(창9:1)
- 벽돌로 쌓은 탑 :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혹시 있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기 위한 탑을 쌓습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sup>36</sup>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30-382.

## &lt;그림26&gt; 성경 줄기 강의 샘플2

 **신상준**  
 관리자 · 3월 16일 오전 11:53

성경줄기 40-3

3. 입(入)애굽과 민족의 발아(창37~50장)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출애굽기에서 민족이 되는 중간에서 연결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은 보디발의 집인 가정학교에서 9-10년 정도 "실물경제" 수업을, 감옥학교에서 3-4년 정도 "정치, 행정" 수업을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책임질 총리로 세워집니다.

-22년만의 형제 화해를 위한 요셉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살려 두었는가?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향한 집착적 사랑을 고집하고 있는가? 베냐민을 형제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는가? 형제들이 야곱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진정한 형제 화해와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야곱의 가정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곳은 요셉이 오래 전부터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가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민족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애굽에 이주한지 17년 만에 야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은 애굽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이 장사되어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유언합니다. 야곱의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합니다. 이는 출애굽의 예행연습이 되었습니다.

-요셉 또한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유언합니다. 후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언 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이후 출애굽의 비전이 됩니다. 요셉과 바로와 야곱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 가정의 입애굽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한 기틀인 민족형성의 토대를 놓으셨습니다.

좋아요      댓글 달기

아래의 <표 9>는 성경 통트랙스 7과 하나님의 마음 20, 그리고 성경 줄기 40을 성경통독 범위와 함께 한번에 알기 쉽게 일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sup>37</sup> 이 파일을 Facebook 그룹 멤버들과 나누면서 앞에 진행하였던 강의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될 성경 줄기 40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sup>37</sup> Ibid., 20.

<표9> 성경줄기 40

| 분위기 7          | 하나님의 마음 20      | 성경 줄기 40       | 통독 범위                                |                       |
|----------------|-----------------|----------------|--------------------------------------|-----------------------|
| 모세5경           | 하나님의 마음         | 원역사            | 창1~11장                               |                       |
|                |                 | 족장사            | 창12~36장                              |                       |
|                |                 |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 창37~50장                              |                       |
|                | 열방을 향한 꿈        | 출애굽과 제국        | 출1~18장                               |                       |
|                |                 | 세계 선교의 꿈       | 출19~40장                              |                       |
|                |                 |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 레, 민1장~10:10                         |                       |
|                | 만나세대            | 만나세대의 성장       | 민10:11~36장                           |                       |
|                |                 | 만나학교 졸업설교      | 신, 시90편                              |                       |
|                | 신앙계승            | 약속의 땅 입성       | 수                                    |                       |
|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                 | 삿              |                                      |                       |
| 교육의 성공사례       |                 | 룻              |                                      |                       |
| 왕정500년         | 천년모범            | 미스바세대의 탄생      | 삼상1~7장                               |                       |
|                |                 | 왕정의 시작         | 삼상8~31장(대상1~10장)                     |                       |
|                |                 | 하나님의 종 다윗      | 삼하(대상11~29장), 왕상1~2장                 |                       |
|                | 마음과 지혜          | 솔로몬과 시가서       | 왕상3~11장(대하1~9장), 잠, 아, 전, 욥, 시       |                       |
|                | 사랑의 줄 사명의 줄     | 남북 분영 왕조       | 왕상12~22장, 왕하1~14장(대하10~25장), 암, 호, 은 |                       |
|                |                 | 북이스라엘의 멸망      | 왕하15~20장(대하26~32장), 사, 미             |                       |
|                | 절망 앞에 선 희망      | 남유다의 쇠락        | 왕하21~23장(대하33~35장), 습, 합, 나, 율       |                       |
|                |                 | 잠깐의 징계         | 왕하24~25장(대하36장), 렘, 애, 읍             |                       |
| 페르시아7권         | 징계, 희망의 디딤돌     | 포로민 설득         | 겔                                    |                       |
|                |                 | 제국 변동의 밑그림     | 단                                    |                       |
|                | 재건 공동체          | 성전 재건          | 스1~4장, 학, 속, 스5~6장, 에, 스7~10장, 시119  |                       |
|                |                 | 성벽 재건          | 느                                    |                       |
| 고백과 침묵         | 말               |                |                                      |                       |
| 중간사400년        |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 헬라 제국과 중간사     |                                      |                       |
|                |                 | 로마 제국과 중간사     |                                      |                       |
| 4복음서           | 기쁨을 위한 탄생       | 예수님 탄생         | 마                                    |                       |
|                | 한 영혼 사랑         | 공생애 3년         | 막                                    |                       |
|                | 용서를 향한 열정       | 마지막 일주일        | 눅                                    |                       |
|                |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 십자가 승리         | 요                                    |                       |
| 사도행전30년        | 열리는 제자 시대       | 열리는 제자 시대      | 행1~12장                               |                       |
|                |                 |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 바울의 1차 전도여행                          | 행13~15:35             |
|                |                 |                | 바울의 2차 전도여행                          | 행15:36~18:22, 살전·후, 갈 |
|                | 바울의 3차 전도여행     |                | 행18:23~19장, 고전·후                     |                       |
|                |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 행20~26장, 롬                           |                       |
|                |                 |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 행27~28장, 엡, 빌                        |                       |
|                |                 |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 골, 몬                                 |                       |
|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                 | 딤후, 딤후         |                                      |                       |
| 공동서신9권         |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 히, 약, 벤티전·후, 유                       |                       |
|                | 미리 건넌받은 승리의 노래  | 최후 승리의 노래      | 요일·아·삼, 계                            |                       |

## Facebook 그룹에서 통성경 강의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지금까지 Facebook 그룹에서 통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통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멤버들 가운데 세대별로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중에 1 명씩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기초로해서 인터뷰를 하였다. 설문에 대한 질문과 인터뷰 또한 Facebook 에서 ‘메신저’ 기능을 사용하여 주고 받았다.

### 설문 내용

Facebook 을 통한 성경공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 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 제게는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함께 성경공부를 하시는 가운데 다음의 질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어나갈 Facebook 을 통한 강의에 참고 자료로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의 박사 논문에도 보내주신 인터뷰의 내용을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몇 분들께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꼭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바뀐 성경에 대한 나의 생각은?
2.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성경읽기에서 변화된 부분은?
3. Facebook 통성경 강의가 나에게 유익했던 부분은?
4. Facebook 을 통한 성경공부가 가지는 장점은?
5. Facebook 강의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6. Facebook 강의에 기대하고 바라는 점은?

## 인터뷰 내용

A 집사(50 대, 주안장로교회)

Facebook 을 통한 성경공부와 관련하여 나의 삶이야기를 보냅니다. Facebook 강의를 들으면서 바뀐 성경에 대한 나의 생각은,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서신이라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나의 성경읽기에서 변화된 부분은 짧게나마 묵상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당시 성경 저자의 입장과 상황 속에서 받은 감동을 글로 써서 받은 은혜나 감정의 변화, 느낌들을 나누고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나에게 유익했던 부분은 잘 요약된 성경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Story telling)할 수 있게 되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힘써 알기까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깨우침이 필요하였는데,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정해주고,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이 해주고 있어서 성경통독에 많은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수고해주시는 목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Facebook 을 통한 성경공부가 가지는 장점은 나눔의 다양성과 다른 의견 청취, 수렴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Facebook 강의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역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함으로인해서 감정과 느낌을 오직 글과 이모티콘으로만 표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의 한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더 연구되면 좋겠습니다.

## B 집사(70 대, 주안장로교회)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접하면서 성경에 대해 바뀐 나의 생각은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그분의 말씀 모듬'이라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경 읽는 것 또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역사와는 상관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어야겠다는 의무감에서 읽던 모습이 역사적인 맥락을 짚어 성경의 해당 부분들을 찾아 연결하여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의 부분이 아닌 성경 전체를 통한 지혜와 안목을 새로이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Facebook 을 통한 통성경 강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점이 특히 두드러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Facebook 을 통해서 공부하는 방식은 우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때와 장소에 용이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접근의 편의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아쉬운 점을 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신상준 목사님의 수고와 정성에 감사를 드립니다.

## C 청년(30 대, 평택꽃동산교회)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접하면서 바뀐 나의 생각은 그동안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읽어야 하는 책인데 의무감이나 읽지 않으면 무언가 양심에 찢리거나 허전한 빈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특히 구약 부분은 읽으며 말씀에 다가가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구약의 본문에 따른 역사적

배경이나 시점에 대해 알고 읽으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요즘은 성경 읽기에 시간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성경읽기에서 변화된 점은 이전에는 하루에 고작 5 장이나 10 장 정도 아무 생각없이 무미 건조하게 읽었습니다. 어려운 구약은 건너뛰고 쉬운 신약을 편중되게 읽었던 습관이 변화되어 지금은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으니 재미도 있고 역사 순서대로 차근차근 꾸준히 읽고 있다는 점이 큰 변화입니다.

가장 유익했던 점은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나 여러 사건들이 그저 성경에 기록된 글자로만 여겨져서 쉽게 와 닿지 않고 어렵게 다가오는 느낌이 많았는데, 순서를 알고 흐름에 따라 읽으니 훨씬 읽기가 수월해 졌다는 점입니다.

Facebook 통성경 공부를 통한 장점은 바쁜 일상 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공부하며, 읽으며,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나 생각 등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온라인으로 접하다 보니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올리지 못하고 나누어서 한다는 점과 직접 대면하지 못함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아무래도 제약이 따르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의에 바라는 점은 좀더 깊이 있는 자료들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램이고 내용이 간결하며 더 쉽게 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강의를 같이 듣는 분들과 서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D 집사(40 대, 승리교회)

신앙생활 6년차인 저에게 성경은 아직도 낯설고 부담스러웠는데, Facebook 으로 통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시대별로 구분되어 관련있는 내용들을 읽고 성경의 큰 줄기들을 알게되니 성경 읽기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니 지금까지 멀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아주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Facebook 으로 통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변화된 부분은 이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하는지,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생각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통성경 강의를 유익했던 것은 그날 강의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을 읽을수 있어 좋았고, 하나의 사건에 대해 흠어져있는 말씀을 한눈에 보고 읽게 되니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Facebook 을 통한 강의였기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또한 아직은 성경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에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Facebook 강의는 성경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룹으로 초대해서 바로 성경을 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도가 빨라서 그날 강의에서 제시된 말씀을 그날에 다 읽지 못했던 아쉬움도 있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반복해서 볼 수 있는 Facebook 을 통한 강의의 장점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강의에 기대하는 바는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참의미를 알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 권사(60 대, 주안장로교회)

이전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놓고 세분화해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Facebook 강의를 들으며 성경에 대한 나의 생각과 일치되는 부분이 참 많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조금씩은 이쪽 저쪽을 찾아보고 검색도 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신구약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90 일 통큰통독’ 을 공부하면서 성경전체를 잘라보며 흥미를 느꼈는데 이번 Facebook 통성경 강의를 들으면서 퍼즐을 맞추는 것같은 흥미로움에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표로 만들어진 부분은 그냥 내용을 나열한 것보다 한눈에 들어와 훨씬 보기 좋았고 필요할 때마다 도표하나만 찾아보면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핵심적인 단어나 주제를 딱 꼬집은 설명은 어떤 땐 속이 후련해지기도 하였습니다.

Facebook 강의가 나에게 유익했던 부분은 줄거리와 메시지 따라잡기,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서로 잘 맞추어 이해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역사적 배경으로 뒷받침해주는 말씀을 찾았을 때 훨씬 쉬워진 이해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Facebook 을 통한 성경공부가 가지는 장점은 제법 여러번 읽은 성경인데도 중간중간 던져지는 질문에 당혹스러워하면서 어떻게든 해답을 찾으려고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더욱 특별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Facebook 강의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한번 주옥 훑고 지나가게 되는데 다시 또 보게 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게 되지 않는

점도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쉬움은 상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 강의에 기대하고 바라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흥미있는 많은 내용을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는 저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Facebook 그룹 멤버들의 구성 및 반응 분석

Facebook 그룹에는 ‘그룹 인사이트’ 라는 것을 통해서 멤버의 증감, 게시물이나 강의에 대한 멤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그래프로 나타내 준다. 또한 멤버들 가운데 그룹 콘텐츠를 읽거나, 게시하거나, 공감을 남기는 활동 멤버를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다. 요일별로 참여도를 알 수도 있고, 각 요일 마다 어느 시간에 얼마나 게시물을 조회하고 참여하는지 여부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강의나 게시물에 대해서 얼마나 조회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 시간 대에 가장 많은 멤버들이 활동하는지 파악해서 게시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Facebook 그룹 멤버의 증감

기존 Facebook 에서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320 여 명이 그룹의 멤버로 시작하였다. 이후 그룹 멤버들에 의해서 추천되어 멤버로 가입된 사람들까지 372 명이 되었다. 이 멤버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갈 전망이다. 다음 <그림 11>은 멤버의 증가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새로 초대된 멤버들에게는 그룹에 대한 소개의 메시지를 넣을 수도 있다.

&lt;그림27&gt; Facebook 멤버의 증감

## 총 멤버

2월 4, 2018~3월 3, 2018

372 멤버



**372**  
총 멤버  
+17%

## Facebook 그룹 멤버들의 연령 및 성별 구성

그룹 구성 멤버의 연령과 성별에 대한 분석은 그 그룹이 어떤 성격을 가지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자료가 된다. 통성경 강의를 위한 본 그룹은 먼저 여성이 49.7%, 남성이 50.3%로 구성되어 있다. 13-17 세 여성이 0.0%, 남성이 0.3%, 18-24 세 여성이 5.9%, 남성이 4.3%, 25-34 세 여성이 6.5%, 남성이 4.8%, 35-44 세 여성이 11.6%, 남성이 8.3%, 45-54 세 여성이 18.0%, 남성이 15.1%, 55-64 세 여성이 6.2%, 남성이 13.2%, 65+세 여성이 1.6%, 남성이 4.3%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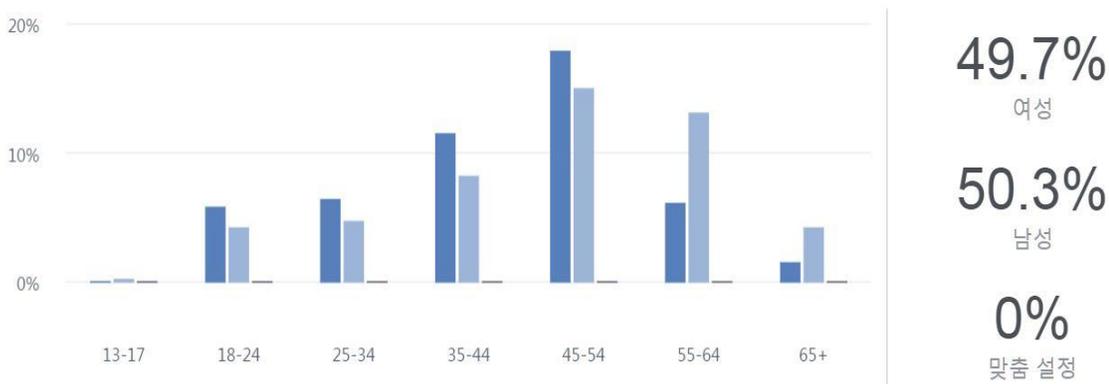
13-54 세까지는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지만, 55 세 이상으로 가면 남성의 참여비율이 거의 두 배이상 높다. 교회의 구성원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소셜 미디어 공간으로 들어오면 남녀의 참여 비율은 전체적으로 비슷해 지다가 연령이 높아지면 남녀의 비율은 오히려 남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남성들에게는 Facebook 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가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28> Facebook 그룹 멤버들의 연령 및 성별 분석

연령 및 성별 ?

49.7% 여성 50.3% 남성 0% 맞춤 설정



<그림29> Facebook 그룹 멤버들의 지역별 분석

| 인기 국가 | 상위 거주 도시                     |
|-------|------------------------------|
| 대한민국  | 355 인천광역시 121                |
| 미국    | 6 Gyeonggi-do Dongducheon 88 |
| 캐나다   | 2 서울특별시 51                   |
| 독일    | 2 고양시, 경기도 30                |
| 인도네시아 | 2 Gyeonggi-do Yangju 12      |
| 호주    | 1 Gyeonggi-do Hwaseong 9     |
| 중국    | 1 제주시, 제주도 4                 |
| 영국    | 1 부천시, 경기도 4                 |
| 홍콩    | 1 Gyeonggi-do Pyeongtaek 3   |
| 태국    | 1 Gyeonggi-do Seongnam 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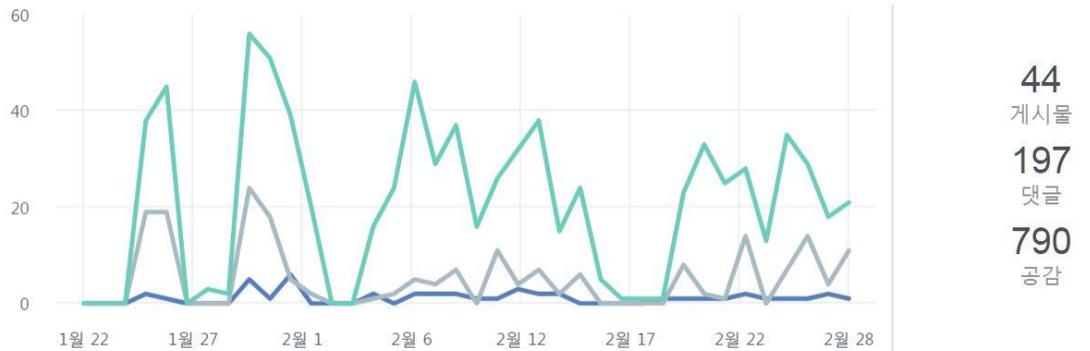
Facebook 그룹 멤버들의 활동 및 반응

다음 <그림 14>는 그룹 멤버들이 게시물에 대한 공감을 댓글과 ‘좋아요’를 눌러서 표시한 반응을 수치화 한 것이다.

<그림30> 강의와 게시물에 대한 댓글과 공감

1월 22, 2018~2월 28, 2018

44 게시물 197 댓글 790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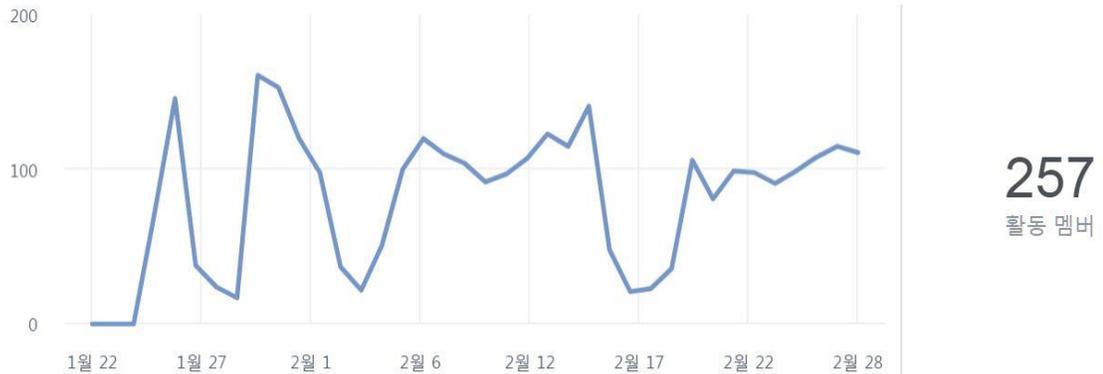
<그림 15>는 날짜별로 활동한 멤버들을 수치화한 그래프 이다. 매일 활동하는 멤버들의 증감을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31> 날짜별 활동 멤버

활동 멤버 ?

1월 22, 2018~2월 28, 2018

257 멤버



### 게시물, 댓글 및 공감에 대한 요일별 참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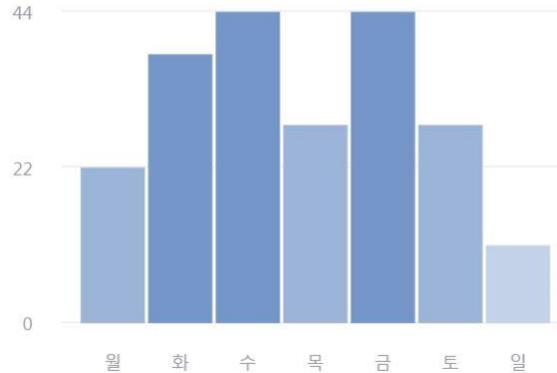
강의와 게시물에 대한 요일별 댓글 및 공감의 변화는 <그림 16>의 그래프에 따르면 일요일이 가장 반응의 비율이 낮고, 수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일요일의 경우는 교회에 출석하여 활동하는 이유에서 반응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주일 중에 강의나 게시물을 올린다면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그림32> 멤버들의 요일별 참여도

#### 요일별 참여 ?

1월 21, 2018~2월 28, 2018

게시물, 댓글 및 공감



### 강의와 게시물에 대한 시간대별 참여도 변화

강의와 게시물에 대한 반응을 시간대별 참여도 변화여부를 살펴보면 어느 요일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은 멤버들이 참여하는지를 알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그림 17>의 시간별 참여 그래프를 보면 일요일에는 오후 10시 이후, 월요일에는

오전 10 시 정도, 화요일에는 오후 3 시 정도, 수요일에는 오후 4-6 시, 목요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비교적 고른 참여를 보이고, 금요일에는 오전 11-오후 1 시, 토요일에는 오전 10 시를 전후 해서 많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일의 시간별 참여도를 보면 강의와 게시물을 각 요일마다 올릴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간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33> 멤버들의 각 요일의 시간별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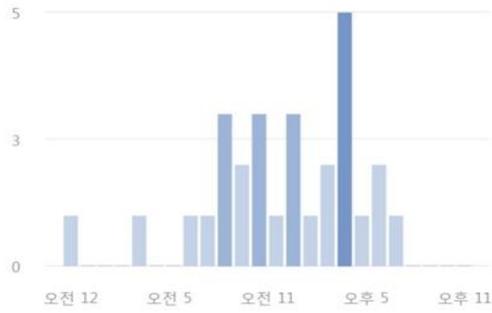
시간별 참여 ②

목요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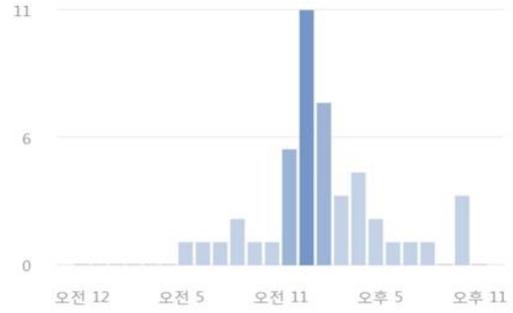
시간별 참여 ②

금요일 ▼

1월 21, 2018~2월 28, 2018  
게시물, 댓글 및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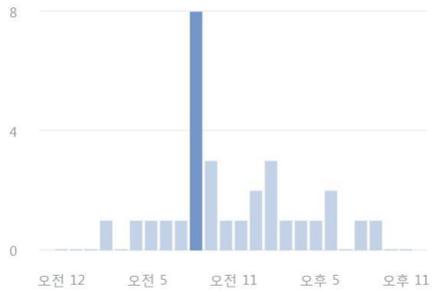
1월 21, 2018~2월 28, 2018  
게시물, 댓글 및 공감



시간별 참여 ②

토요일 ▼

1월 21, 2018~2월 28, 2018  
게시물, 댓글 및 공감



## 제 V 장

### 결론

#### 요약 및 평가

소셜 미디어의 가장 대표적 성격과 특징은 공유와 개방이다. 사회 또한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다. 물건과 정보가 공유되고,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미디어는 점점 발달하여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을 일들이 소셜 미디어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심을 사회는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는 사회이다. 닫혀 있지 않고 열린 개방화된 사회이다. 이 사회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가치관을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내는 데에 적합한 미디어를 선택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경을 담아서 전달할 그릇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소셜 미디어는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린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손에 휴대가 가능한 미디어 기기를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것이다. 손 안에서 세계를 담을 수 있는 도구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유도해 낼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경은 2,000 년의 시간과 1,500 곳의 공간, 5,000 명의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미디어이다.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그 기록을 전달하고자 하는 많은 방식들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병호의 ‘통(通)성경’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성경 전체를 7 개의 트랙으로, 20 개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40 개의 성경 줄기로 나누어서 역사의 흐름을 바탕으로 읽어나가게 함으로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적으로, 즉 통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성경의 성경을 읽는 방법과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가운데 하나인 Facebook의 ‘그룹’ 기능을 통해서 전달하였다. 통성경의 특징이자 강점인 성경을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한 눈에 보이는 표와 그림이 이해를 돕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에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사진과 음성파일들을 게시하여 공유하였다.

Facebook 을 통해서 통성경 강의를 진행한 결과 각 세대별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전에 교회에서 했던 성경공부와 달랐던 것은 통성경 강의를 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전후 문맥과 전체를 보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놀라움도 전해 왔다. 성경을 활자화된 평면으로 대했던 읽기가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동적으로 다가왔음을 경험하였다는 소식은 통성경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 결론과 제언

말, 그림, 글, 전파를 통한 소리와 영상, 웹을 기반으로 한 소통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것을 간과하고서는 현대의 소통의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전통적인 소통 방법인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소통의 방법이 다변화 되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만남은 이전의 미디어를 통한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 되었다. 마치 직접 만나는 것같은 효과를, 아니 직접 만나는 것에서 얻을 수 없는 것까지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 시대 속에서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것도 통성경 읽기의 방법을 Facebook 이라는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여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는 이제 이 만남의 장인 소셜 미디어 공간을 결코 놓쳐서는 안된다.

교회는 이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안에서 많은 것들을 나눈다. 이러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 나눔을 통해서 이다. 이제 소셜 미디어인 온라인을 통한 하나님 말씀과의 만남과 나눔이 오프라인의 공동체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만남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의 개방화된 특성때문에 오류가 끼어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오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가운데 수정되고, 확대되고, 더 나아가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가지는 유익이라할 것이다. 소셜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공간도 분명히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하나님 말씀으로의 소통은 부정적인 측면 보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걱정만 할 것이아니다. 세상은 점점 악을 향해 달려간다고 실망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이 시대를 개혁하며, 구원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놓지 않는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소셜 미디어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연구에서 진행했던 방법들을 제안해 본다.

## 부록 1. 성경 통트랙스 7.

## 트랙1. 모세 5경의 분위기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가 설정되는 분위기이다.

창세기(원역사와 족장사), 출애굽기(민족을 이루어 탈출), 레위기(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민수기(두번의 인구조사), 신명기(만나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는 모세 5경과 왕정 500년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모세 5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에서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레위를 선택하셔서 레위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다. 모세 5경에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지켜야 할 율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제사장 나라(Kingdom of Priests)를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흉년에 곡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는 동안 번성케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이라 부를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출 19:5~6)

하나님께서서는 ‘민족’은 있으나 ‘나라’를 갖지 못한 히브리인들에게 제국을 세우기로 결심한 애굽의 오만과 억압을 민족적으로 경험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훈련시키신다.

질문.

-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 노력까지 했는가?<sup>1</sup>

모세 5 경에서 왕정 500 년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요구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4~7

#### 트랙2. 왕정 500년 분위기

왕과 선지자들의 대립과 협력하는 분위기이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통일왕국 120년, 분단국가 200년, 남유다 150년)

북이스라엘: 아모스(하나님의 공의), 호세아(신앙 바로세우기), 요나(열방의 하나님)

남유다: 이사야(하나님의 세계경영), 미가(사회정의, 메시아예언)

북이스라엘 멸망 후: 스바냐(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박국(의인은 믿음으로), 나훔(니르웨를 향한 최후통첩), 요엘(진정한 회개), 예레미야(심판을 받으라), 예레미야애가(슬픔 뒤의 소망), 오바다(에돔 심판)

<sup>1</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118.

\*읍기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 왕정 500 년과 페르시아 7 권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이 왕의 통치를 받은 500 년의 기간을 말한다. 이스라엘 왕은 초대 왕 사울에 이어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120 년간 통일 왕국이었다. 그 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 분단된 채 200 년을 보냈다. 200 년간 한 민족, 두 국가로 보낸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함으로 남유다만 남게 된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50 년을 더 유지하지만,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해 나라의 문을 닫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만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서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통치까지를 다룬 부분이 바로 왕정 500 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통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왕정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왕정 500 년이 이어진다.

이 왕정 500 년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왕과 선지자들은 ‘제사장 나라’ 를 두고 협력과 대립의 500 년 시기를 보냈다.

## 질문

-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왕과 대립했는가?<sup>2</sup>
- 왜 예후 왕은 블랙 오벨리스크에 새겨졌는가?<sup>3</sup>

왕정 500 년에서 페르시아 7 권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예레미야가 슬픔을 오히려 소망으로 바꾸면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옵은..” 예레미야애가 3:19~23

## 트랙3. 페르시아7권 분위기

다시 시작하는 제사장 나라를 향한 기대의 분위기이다.

다니엘(행정가로서 감당한 사명), 에스라(공동체의 신앙회복을 위하여), 학개(성전재건 설득), 스가랴(예루살렘 회복선포), 에스더(민족을 위해 던진 생명), 느헤미야(성벽 신앙재건), 말라기(내팽개쳐진 하나님의 사랑)

\*에스겔 -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선포한다.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는 구약성경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7 권의 책이다. 남유다 백성이 1,2,3 차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70 년을 살았다. 그러던 중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의 주인으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포로들에게 모두 자국으로 돌아가도

<sup>2</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68.

<sup>3</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154.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것이다.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의 귀환도 1,2,3 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땅의 기록들이 바로 페르시아 7 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 1 차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둘러싼 학개, 스가랴, 2 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그리고 1 차 귀환과 2 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발생했던 사건 기록인 에스더가 모두 페르시아 제국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3 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 7 권이 페르시아 7 권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과 집들이 불타고, 거리에는 시체가 나뒹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가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밤새 울고 또 울었다. 그런데 새벽에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고초와 재난으로 낙심이 되나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으므로 그들을 통해 다시 제사장 나라를 꿈꿀 수 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이 꿈은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 때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

### 질문

-왜 스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가 되었음에도 동시대 동족들에게 오히려 존경을 받았는가?<sup>4</sup>

<sup>4</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72.

페르시아 7 권에서 중간사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재건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냉소적으로 변해  
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라기 1:2. 이후 400 년간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진다.

#### 트랙4. 신구약 중간사 400년 분위기

구약성경의 세계화와 유대 분파의 형성 분위기이다.

페르시아 - 헬라 - 프톨레미 왕조의 유대통치(70 인역) -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통치(유대분파) - 마카비혁명, 하스몬 왕조 - 헤롯 왕조 - 로마의 유대통치

구약과 신약 사이, 즉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400 년의 역사를 말한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에게 대속물로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이 신구약 중간사 400 년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이 헬라 제국의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되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의 셀루커스 왕조의 유대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의 분파(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생겨난 것이다.

#### 질문

- 왜 유대인은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분파되었는가?<sup>5</sup>

<sup>5</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75.

- 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 결혼식에 바리새파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던졌는가?<sup>6</sup>

중간사 400 년에서 4 복음서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400 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요한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 3:2.

#### 트랙5. 4복음서 분위기

하나님 나라가 설정(Set-up)되는 분위기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제국에서 제사장 나라를 거쳐 하나님 나라를 선포)

\*4 복음서와 사도행전 30 년 사이를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행 4)가 구분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성경은 요약과 압축의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속에 요약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행적만큼은 무려 4 명의 저자를 동원하셔서 4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4 명의 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책이 바로 4 복음서이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등장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 복음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The

<sup>6</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200.

Kingdom of God)를 실천과 비유를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비유를 들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모든 제국들은 하나같이 “제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쳤다. 그러나 모든 제국들은 결국 다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 질문

-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여기셨는가?<sup>7</sup>

4 복음서에서 사도행전 30 년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기점으로 세워진 교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5~12

### 트랙6. 사도행전 30년 분위기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분위기이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2 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고린도전후서(3 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로마서(3 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

<sup>7</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81.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마 감옥에서), 디모테전서 디도서  
디모테후서

\*사도행전 30년(유대교의 박해)과 공동서신 9권(로마의 박해) 사이를 로마  
대화재 사건(A.D.64)이 나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체험한 열두 사도들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한 30년간의 역사 기록을 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에서부터 로마 대화재 사건이 나기 전까지 30년간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과 완악한 유대인들이 기독교 전파에 대해 지독하게 방해를 일삼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기간이 사도행전 30년이다.

신약시대, 로마 제국의 속국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세력은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된다.

#### 질문

- 왜 대제사장 세력들은 30년 동안 야고보와 스테반을 죽이고, 더 나아가 바울을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때렸는가?<sup>8</sup>

---

<sup>8</sup>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324.

사도행전 30 년에서 공동서신 9 권으로 넘어가는 ‘반전’ 분위기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기독교는 유대인의 박해로부터 로마 제국의  
 박해로 국면 전환. 바울의 유언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5~8

#### 트랙7. 공동서신 9권 분위기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분위기이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 1,2,3 서 요한계시록

공동서신 9 권은 로마 제국이 로마 대화재사건 이후로 본격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당시 초기교회 지도자들의 9 권의  
 편지들을 일컫는다. 사도행전 30 년 기간에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A.D.64 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방해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발생한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에 빠지는 등 큰 혼란을 겪게 된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어 내게 하는 원동력을 만든다. 결국 A.D.313 년 약 250 여 년간의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기독교는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

## 질문

-왜 470 명의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해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 사도 바울을 죽였는가?<sup>9</sup>

---

<sup>9</sup> 조병호, *CBS 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94.

## 부록 2. 하나님의 마음 20.

### 1. 하나님의 마음(창세기)

창조 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하셨다.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은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다.

창 6:5-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의 대상은 다른 피조물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다.

홍수심판은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이다. 그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노아는 순종의 땀으로 닦았다. 심판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창 22:12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라주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 기쁨의 극치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이루어 졌다. 이삭을 드리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2000년 후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실제로 주신다.

아브라함의 유언은 이삭이 비전이 되었으며, 이삭의 유언은 야곱의 비전이 되었고,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후손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다. 꿈에는 고난을 훈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담겨있다.

## 2. 열방을 향한 꿈(출, 레, 민1장-10:10)

아브라함, 모세를 통해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꿈을 꾸시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셨고, 설득된 모세는 백성을 설득한다.

출 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샘플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꾸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놀라운 일을 위해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 만드는 훈련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 꿈은 훈련을 통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어졌다.

아담, 노아(생육하고 번성) - 아브라함(큰 민족, 이름을 창대) - 500년 후 시내산 언약(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 3. 만나세대(민10:11~36장, 신, 시90)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선택(민 10:11~21 장): 하나님께서 500 년 가까이 꿈꾸어 오신 일을 정면으로 거부한 사건이다. 가나안 정복 계획은 40 년 뒤로 연기되었다. 불신앙의 출애굽세대들 대신에 광야에서 자란 만나세대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다.

성공적 계승(민 22~36 장): 아브라함 이후 5 백여 년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고이 간직되어왔던 가나안 땅, 이 약속의 성취를 구체화시킬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세는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 쏟아놓는다.

만나세대를 위한 역사특강(신, 시 90)으로써 ‘쉐마’의 말씀은 단지 율법의 되풀이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던 모세가 만나세대에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당부하는 말씀이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길 바라신다.

### 4. 신앙계승(수, 삿, 룻)

약속의 땅에서의 계승과 도전(수 1~12 장): 만나세대들 앞에는 여전히 아낙자손이 버티고 있었고,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었지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땅 분배는 창 12 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이다.

순종의 땅, 행복의 단비(수 13~24 장, 삿 1 장~2:10): 아낙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선택한 갈렙은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땅을 분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비전은 이제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교육의 실패(삿 2:11~21 장): 만나세대들의 가나안세대를 향한 자녀교육 실패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급속하게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빠지게 하였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지 못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근심이 되었다.

교육의 성공사례(룻):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찾기 어려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룻과 보아스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계승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준비된다.

살몬(라합) - 보아스(룻) - 오벧 - 이새 - 다윗...- 예수(룻 4:21-22, 마 1:5-6,16)

##### 5. 천년모범(삼상하, 대상, 시, 왕상1~2장)

미스바세대(삼상 1~8 장):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시대부흥운동을 펼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미스바세대의 탄생이다.

임명권자(삼상 9~31 장 대상 1~10 장 시 34,52,54,56,67,59,142 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야 할 책무가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평판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 다윗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임명권자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원칙을 지켜나간다.

세 번의 기름 부음(삼하 1~10 장 대상 11~19 장 시 60 편): 20 년 동안의 다윗의 준비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명권 존중)와 ‘사람 앞에서’ (참아 기다림)의 준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동서남북의 경계대로 국가의 기틀을 갖춘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과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의 정치를 하게 된다.

다윗의 꿈은 강력한 제국 건설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모범을 이어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다. 다윗의 군사력은 결단만 하면 제국 건설이 가능했던 130 만(삼하 24:9) 대군이다. 이 군사력으로 다윗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넓히는 제국주의로 나가지 않다. 이는 약속의 땅의 범위를 정해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슬초 정결(삼하 11~24 장 왕상 1~2 장 대상 20~29 장 시 3,7,18,51,63 편 그 외 시편): 시편 51 편을 통한 진실하고도 깊은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된다. 다윗은 진실한 신앙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가까이 하였으며, 치밀한 사회언어를 통해서는 그 시대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였다.

#### 6. 마음과 지혜 (왕상3~11장, 대하1~9장, 시72,127, 잠, 아 전, 욕)

열방을 향한 성전(왕상 3~10 장 대하 1~9 장 시 72,127 편): 다윗의 정성스런 준비, 솔로몬의 성실한 실행, 그리고 백성들의 수고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 로서의 사명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감격적인 장면이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기도에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를 선포한다. (왕상 8:41-43)

지혜와 사랑(잠언, 아가): 지혜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나 자신의 명철로 파악되는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아가서에 흐르는 이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사랑과도 같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유한인생 무한지혜(왕상 11 장, 전도서): 우상숭배로 인해 흔들려버린 솔로몬의 말년은 평안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강한 선언 속에는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

눈물과 하늘보석(욥): 욥은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실존적 고난과 영원한 지혜에 관하여 고백하게 된다. 고난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다.

## 7.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왕상12~22장, 왕하1~20장, 대하10~32장, 암, 호, 욥, 사, 미)

멀어져 가는 사명(왕상 12~22 장 왕하 1~14 장 대하 10~25 장):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상호 발전하고, 나아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사명의 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뿌린 씨앗은 후대에까지 계속 뿌리내려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마지막 호소(암 호 욥):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버린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마지막 호소를 하고 계신다.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시며 정성을 쏟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는 그 마음이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세계경영(왕하 15~20 장 대하 26~32 장 사 1~39 장): 나라를 살리는 것은 외교와 국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하심에 맡기는 것이다. 기울어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앗수르 왕 앞에 엎드려 조공을 바치는 북이스라엘 예후 왕의 치욕적 사건은 하룻길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지 않은 때문이다.

영광과 평화의 청사진(사 40~66 장):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소망을 선포하신다.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은 온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로서, 인류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청사진이다.

영광이 빠져버린 시온산성(미가): 미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이 넘쳐나는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놀라운 사명을 선포하며, 지금의 죄악된 모습에서 돌이킬 것을 외치고 있다.

## 8. 절망 앞에 선 희망

(왕하21~25장, 대하33~36, 습, 합, 나, 율, 렘, 읍, 애)

왕정 총결산(왕하 21~23 장 대하 33~35 장 습 합 나 율):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뒀지지 않았다. 선지자들은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동시에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있다.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왕하 24~25 장 대하 36 장 렘 읍): 타락해버린 왕과 제사장들에게서 희망을 거두시고 메시아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70 년간의 고난의 시기를 참고, 훈련의

기간을 건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세움 받으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포의 핵심이다.

탄식의 땅, 소망의 노래(애): 힘없는 백성들의 피해를 줄여보고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무시한 왕과 권력자들로 인해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었다. 성전이 불타는 절망 앞에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이 새 언약이라고 희망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애 3:31-33)

### 9. 징계, 희망의 디딤돌(겔, 단)

그발 강변의 설득(에스겔):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1,2,3 차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회복이요, 그 땅의 죄악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는 죄로부터의 회복이며, 흩어져 있는 민족이 하나가 되는 회복이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70 년의 징계는 희망의 디딤돌이라고 외친다.

영성과 사회성의 사람(다니엘): 영성과 사회성의 조화, 이것은 성경을 통독하는 중에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다니엘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해 신앙이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 10. 재건 공동체

(에스라, 시편119,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거룩한 구심력(에스라 1~6 장, 학개, 스가랴, 에스더): 70 년간의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재건세대’ 들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공동체를 다시 세우게 되는 중책을 감당한다.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 16 여 년간 공사가 중단된 성전은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과 격려로 마침내 완공하게 된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에스라 7~10 장, 시편 119 편): 말씀에 대한 ‘연구’ 가 끝나면 바로 ‘가르침’ 으로 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행’ 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에스라는 재건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 기초부터 튼튼히 세워져가기를 소망하였다.

중간목표 최종목표(느헤미야):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는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해 느헤미야는 중간목표를 세워 달려왔다. 성벽재건이란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웃)을 위해 안전장치(기쁨)를 만들어 주는 작업이었다. (느 12:27,43)

천오백 년 사랑의 아쉬움(말라기): 안타깝게도 재건공동체는 시간이 갈수록 제사장과 지도자들의 잘못된 인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으로 변해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로 반문하는 이스라엘에 400 년의 긴 침묵으로 들어가신다.

## 11.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신구약 중간사)

말라기에서 예수님 탄생까지 400 여 년을 침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계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며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했다는 고백을 준비하신다.

이 기간 동안 페르시아제국이 멸망하고, 헬라제국이 등장했다가 멸망했으며, 로마제국이 들어서는 역사가 지나간다. 이스라엘은 제국들의 통치에 괴로움을 당하며 구원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살게 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12, 기쁨을 위한 탄생(마1~4장, 막1장~3:19, 눅1장~6:19, 요1~2장)

이천 년을 잇는 징검다리(마 1:1~17 막 1:1 눅 1:1~4,3:23~28 요 1:1~18):

마태복음 1:1 은 구약전체, 나아가 성경전체의 숲이 지향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 2 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오신 하나님 나라의 경영,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 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탄생이다.

들러리의 기쁨(마 1:18~3 장 막 1:2~11 눅 1:5~2:39,3:1~22 요 1:19~34):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8 백여 년 전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필요했고, 그들은 그 헌신을 감수했다. 인생을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세례요한은 그의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생을 마감한다.

끝까지 가져갈 기초들(마 4 장 막 1:12~3:19 눅 2:40~52,4 장~6:19

요 1:35~2:12):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소중한 기억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사랑 이야기를 증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디딤돌이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택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특권을 누렸던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

### 13. 한 영혼 사랑

(마태5~19장, 마가3:20~10:31, 누가6:20~19:10, 요한3~11장)

하늘비밀(마태 5~7, 13~14 장, 마가 4:1~34, 8 장, 누가 6:20~49, 9,11~13 장, 요한 3 장~4:42, 6~7 장):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 언어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주도해 가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신다.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마태 8 장, 마가 3:20~35, 4:35~5:20, 누가 7~8 장, 요한 4:43~5 장, 9 장):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병자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며 그 환부에 직접 손을 대어 고치시는 것이었다. 이러한 예수님의 손은 거친 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 따뜻한 손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만나야 할 사람을 사랑으로 찾아가신다.

비밀 언덕이 되어(마 9~12, 15~19 장, 막 5:21~7 장, 9~10 장, 눅 10 장, 14 장~19:10, 요 8, 10~11 장): 예수님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사람’ 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사람’ 을 위하여 행해졌다.

예수님의 생명을 향한 관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천하의 값을 잘 모른다. 그러나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은 천하의 가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가치는 참새보다도, 2000 마리 돼지보다,

안식일보다, 천하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귀하게 여겨 주신다.

#### 14용서를 향한 열정

(마20장~27:31, 막10:32~15:20, 눅19:11~23:25, 요12장~19:16)

어린 나귀를 타고(마 20~21 장, 막 10:32~12:12, 눅 19:28~48, 요 12:1~43): 내가 높아져야겠다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이 높아질 날을 꿈꾸며 기다리신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하신 것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세우시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공의의 저울 앞에서(마 22~25 장, 막 12:13~13 장, 눅 19:11~27,20~21 장, 요 12:44~50):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으로서 주신 율법이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사람을 억누르는 데에 악용되는 것을 보시고, 자기 욕심을 위해 진리를 바꿔버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질타하신다.

침묵으로 익힌 열정(마 26 장~27:31, 막 14 장~15:20, 눅 22 장~23:25, 요 13 장~19:16): 예수님은 침묵으로 열정을, 기도로 순종을 익혀내셨고, 그 침묵 안에서 오랫동안 품어 오신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 익어가고 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큰 목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미움과 멸시를 감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다.

## 15.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마27:32~28장, 막15:21~16장, 눅23:26~24장, 요19:17~21장)

계약과 관계의 신비(마 27:32~56 막 15:21~41 눅 23:26~49 요 19:17~37):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관계(사랑, 용서)와 계약(처벌, 정의, 심판)이 들어 있다.

십자가는 계약과 관계, 처벌과 용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된 장소이다.

영광으로의 초대(막 27:57~28:15 막 15:42~16:11 눅 23:50~24:12

요 19:38~20:18):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희망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노래해야 할 진정한 승리, 가장 영원한 승리이다.

평화를 위한 시작(마 28:16~20 막 16:12~20 눅 24:13~53 요 20:19~21 장):

부끄러움과 아쉬움을 가진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 부끄러움을 열심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초대하신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부탁하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목숨 다하여 감당하는 그들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다.

## 16. 열리는 제자 시대(행1~12장)

교회, 사명과 축복의 통로(행 1~5 장): 만나세대도, 미스바세대도,

재건세대도 아쉽게 당대로 끝나버렸지만 예수님께서 남긴 제자세대는 계속 이어져서 2천 년을 넘어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예수님의 유언이 온 인류를 향한 지상명령이었고, 그 유언은 제자들의 진정한 비전이었다.

비로소 깨달은 ‘함께’의 의미(행 6~12 장):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동체의 운영방안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다. 교회 공동체에

선민과 이방인이 함께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밝혀 오신 ‘함께’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 17.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행13장~21:16, 살전후, 갈, 고전후, 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행 13 장~15:35): 할레 문제로 촉발된 ‘율법과 구원’의 문제는 교회의 하나 됨을 분열시킬 수 있는 큰 문제였다. 예루살렘 공의회로 결정으로 유대인들이 쌓아놓은 선민과 이방인과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진리와 자유를 위한 대장정(행 15:36~18:22 살전 살후 갈):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로 2차 전도여행에서는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동역자들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전파의 사역을 계속하게 된다.

제자훈련, 사랑과 은사(행 18:23~19 장, 고전): 3차 전도여행 중에 두란노서원에서의 집중적인 가르침으로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었다.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낮은 마음, 높은 설득(고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역하였다. 복음의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있지 못한 고린도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바울은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

땅 끝 비전과 받음직한 섬김(행 20 장~21:16, 롬): 바울은 예수께서 남기신 ‘땅 끝까지’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로마의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인

로마서를 보낸다. 주는 쪽에서가 아닌 받는 쪽에서 믿음직 하게 섬기는 것이 아름다움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

## 18.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행21:17~28장, 엡, 빌, 골, 몬, 딘, 딘전후)

예루살렘에서의 작별과 설득(행 21:17~26 장):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예루살렘 교회와의 깊은 연계를 기본 목적으로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위해 죄수의 신분도 마다하지 않았다. 바울의 로마행은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의 최종목표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중간목표였다.

몸 된 교회를 위한 기쁨의 고난(행 27~28 장 엡 빌 골 몬):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에 편지하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후 승리를 꿈꾸는 동역자들에게(딘전, 딘, 딘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이 바른 교회 이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편지에서 언급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준비된 면류관이 있다는 바울의 고백을 디모데와 마가가 믿고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대박해를 앞둔 2 세대 복음전도자들이 든든히 서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 19.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히, 약, 벤티후, 유, 요일이삼)

땅 끝까지, 끝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싸움은 AD. 64~313년, 약 250년간 로마제국의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 싸움이다.

고인 전통, 움직이는 교회(히, 약): 고인 물인 유대교는 핍박받지 않지만, 온 세상을 바꾸겠다는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다. AD. 63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로 로마제국으로부터 점차로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믿음의 증인들을 따라 박해를 이겨낼 것이며, 믿음의 주님이시오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 볼 것을 권면 한다.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벤티후 벤티후 유): 다가오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장차 주어질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소망을 잃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또한 거짓 진리를 따르지 말고 오직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힘써 대항하면 승리를 얻을 것이라 말씀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요일 요이 요삼): 요한의 편지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이시다. 사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의를 실천할 때 드러나게 된다.

### 20.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요한계시록)

온 몸으로 읽는 책(계 1~3 장):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찬가’ 라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신앙의 모습을 7 교회를 통해 들추어내시는 것은 단순히 책망하고 질책하여 징계를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의 책망 받을 만한 모습에서 돌이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셨다.

우리 안에 있는 승리의 환상(계 4~20 장): 하나님께서 만드시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리라는 환상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는 살아 영원하다는 믿음은 말씀을 강하게 붙들게 하는 힘이다.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기쁨(계 21~22 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회복된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주는 것이 복된 일이다.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가지지 못하면 줄 것도 없다.

## 부록 3. 성경 줄기 40.

## 1과 원역사

창세기 1 장부터 11 장까지는 고대사 이전의 원역사(primeval history)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초점으로 하여 다음의 내용을 토대로 성경을 통독한다.

천지창조: 각종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이다.

먹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다. 사탄은 사람을 유혹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지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깨진 관계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의 씨가 뿌려졌다. 그런데 형제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살인이 자행되었다. 이는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사건이다. 바로 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홍수 사건: 한탄과 근심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인간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물을 순종의 땀으로 닦아내고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노아의 가정에게 다시 주어진다(창 9:1).

벽돌로 쌓은 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혹시 있게 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기 위한 탑을 쌓는다.

## 2과 족장사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그 믿음의 성장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된다.

이삭이야기(창 25:12~26 장):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승의 과정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양보와 순종의 모습이 에서와 야곱에게는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야곱이야기(창 27 장~35 장): 이삭에서 쌍둥이 아들 가운데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으로의 믿음의 계승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과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난다.

## 3과 입애굽과 민족의 발아

요셉 이야기, 유언과 비전: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한 믿음의 가문이 출애굽기에서 민족이 되는 데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다. 야곱의 유언은 요셉의 비전이 되었고, 요셉의 유언은 이후 출애굽의 비전이 된다. 예수님의 유언은 당시 제자들은 물론, 오늘 우리에게까지 비전이 된다. 성경의 첫 이야기인 ‘창세기’를 인생들의 마지막인 ‘유언’과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비전’으로 연결할 수 있다.

## 4과 출애굽과 제국

설득과 기적: 출애굽 전 과정은 ‘설득과 기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협상을 달리 표현하면 ‘설득’이다. 그리고 아홉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보다 애굽 백성을 설득하는 중차대한 방법이였다. 애굽 제국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기적을 통해 당신을 알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치지 말자.

#### 5과 세계 선교의 꿈-제사장 나라

선교의 꿈: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꿈’의 기초가 놓인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세계 선교의 초석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꿈은 성경 전체를 통독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하는 생각이다.

설계와 시공-성막: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세워진다. 바로 ‘성막’과 ‘제사’이다. ‘설계’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참여, 헌신이었음을 기억하자. 또한 설계에는 목적이 있다. 성막과 제사의 설계는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설계와 시공-제사: 앞서 출애굽기 35~40 장에서는 ‘성막’의 설계와 시공을 살펴보았다. 이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5가지의 제사법을 주신다. 5가지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더 깊은 만남을 위한 제안이다. 그 핵심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제사는 인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해주시고 다시 만나주시겠다는 적극적 표현이다.

시민학교: 시내산에서의 1년은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의 기간이었다. 그들에게는 ‘시민학교’인 것이다. 학교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교육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성막이 세워진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주어진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시민학교’의 최고의 교과서이다.

### 7과 만나세대의 성장

만나세대의 형성: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장에 이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여준다. 민수기 전체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대상이 각기 다르다.

성공적 계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40년간 광야에서 자란 만나세대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는다. 그들의 부모세대인 출애굽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잘 교육되고, 훈련되었다. 말 그대로 ‘성공적 계승’이었다.

### 8과 만나학교 졸업설교

만나학교 졸업설교: 신명기는 만나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근처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두 달간 총 4번에 걸쳐 전해진 모세의 ‘만나학교 졸업식 설교’이다. 이 졸업식 메시지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의 놀라운 길을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 40년 전 시내산에서의 제사장 나라 꿈이 모세 한 사람의 기쁨이었다면, 40년이 지난 지금 신명기에는 만나세대 60만 명의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세의 사역 마감: 신명기 31~34 장에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모세의 노래 그리고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모세의 죽음으로써 신명기가 끝이 난다. 모세가 사역을 마감하며 행한 일은 두 가지 이다. 첫째는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 행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잘 살피고 모세가 지난 역사를 담아 부르는 노래인 시편 90 편을 함께 읽는다.

### 9과 약속의 땅 입성

약속의 땅에서의 계승과 도전: 여호수아 1~12 장은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공동체에 어떻게 잘 계승되었는지, 그렇게 잘 계승된 그들이 어떤 도전의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자.

순종의 땅, 행복의 단비: 여호수아 13~24 장은 ‘분배’ 이야기이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속에서 ‘땅’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대 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토대인 ‘땅’이 각 지파별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땅은 ‘순종의 땅’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땅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순종’의 결과일 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수 24:15) 또한 이러한 ‘순종’에 기반하고 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선택이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행복으로 이끈다.

## 10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잊혀진 부탁: 사사 시대라는 350여 년의 암흑기가 전개된다. 모세 시대 시내산 1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놓였다고 강조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사명, 그 사명을 위한 핵심 내용인 성막과 제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성막과 제사의 핵심은 바로 율법과 제사장이다. 사사 시대에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이 중요한 기초가 무너진 사회였던 것이다. 이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부탁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였다.

## 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아름다운 법의 구현: 룯기에는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진다. 왕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

## 12과 미스바세대 탄생

미스바세대: 기도하는 어머니, 충실하게 교육받은 준비된 지도자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백성,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사람들이 ‘미스바세대’를 탄생시킨다. ‘미스바세대’는 ‘만나세대’에 이어 제사장 나라 통치의 율등함을 나타낸 시기이다.

사무엘 시대 총정리: 사무엘 시대는 분명 사사 시대와는 차이가 있다. 사무엘 시대는 첫째, 왕이 없었다. 둘째, 국내에 내분이 없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셋째,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 이처럼 사무엘 시대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꽃이 피는 시대였다.

### 13과 왕정의 시작

임명권자: 사무엘상 9~31 장까지는 사울의 집권 40 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사울이 먼저 왕으로 임명되고, 뒤를 이어 다윗이 임명된다. ‘임명권자’ 는 당연히 하나님이다. ‘임명’ 이라는 말은 ‘임명받은 내용’ , 즉 무엇을 위해서 임명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왕으로 임명되어 해야 할 일, 임명하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 실체와 내용은 바로 ‘율법’ 이다.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임명받은 내용으로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해야 했다. 왕이 되어 그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왕’ 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생각하는 훈련의 시간을 보낸다. ‘임명권자’ 관점으로 사울과 다윗이 비교된다.

### 14과 하나님의 종 다윗

세 번의 기름부음: 지금까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쫓기는 삶을 살아온 다윗을 살펴보았다. 이제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직후, 다윗이 30 세가 되던 해의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때 다윗은 유다 지파로부터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다.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 500년 왕정 가운데 다윗의 통치 30년을 ‘다윗의 길’ 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밀도 높은 헌신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사울 등 많은 왕들이 보여준 대로 왕정 제도는 치명적 결함을 가졌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왕정을 도구로 삼아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다.

우슬초 정결: 우슬초는 애굽이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볼 수 있는 박하과의 식물로, 매우 쓴 맛이 난다고 한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 달라고 기도한다. 자신의 인생에 쓴 맛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이다.

### 15과 솔로몬과 시가서

열방을 향한 성전: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초기 내각정비 3년+성전 건축 7년+왕국 건축 13년의 총 23년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모세 시대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민족의 기초를 세운 이스라엘은 이후 500여 년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성전 건축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유한인생 무한지혜: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17년은 통치 전반기에 쌓아 왔던 모든 기반, 다시말해 그 수많은 잠언들, 철학과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시기이다.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야 할 만큼 솔로몬은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인생의 뒤편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은 ‘헛되다’이다. 그 깨달음을 담은 책이 ‘전도서’이다. 한편, 솔로몬 때까지는 외적으로 12지파 전체가 한 국가인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마치 명든 사과와 같이 분열의 요소들이 싹트고 있었다.

눈물과 하늘보석: 인간의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고난은 인간에게 쓸모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다.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 흘리시며 많은 것을 사람으로 이해시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늘보석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읊기를 통해 발견한다. 또한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함을 시편을 통해 고백한다.

### 16과 남북 분열 왕조

남북 분열 왕조 200 년: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는 통일왕국 시대였지만, 이제는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된다. 이제부터 조금은 복잡해진다. 그러나 복잡한 것은 그만큼 풍성하다는 이야기도 된다. 북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는 도무지 동떨어져있던 시대였다. ‘떨어져가는 사명’을 생각하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남유다 200 년의 특징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지그재그를 반복했다.

북이스라엘 200 년은 첫째, 여로보암의 길로 200 년을 직진했다. 둘째, 여로보암에서 시작해 호세아로 끝났고, 중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있었다. 셋째, 오므리 왕조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 왕조 때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다윗의 길로 유턴을 시도했다. 넷째, 결국 주전 8 세기 앗수르가 등장해서 사마리아를 사마리아인(혼혈족)으로 만들었다.

마지막 호소: 여기까지의 내용을 공부한 후 이제부터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던지며 간절히 호소했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공부한다. 호소는 그저 적당히 부탁, 혹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호소는 몸부림이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호소에도 북이스라엘은 끝내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들의 외침은 그야말로 ‘마지막 호소’였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와 함께 사역한 선지자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들을 통해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코자 하셨다.

### 17과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사야 40 장을 분기점으로 남유다에 대한 이사야의 심판 예언이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이사야 9 장에서의 강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사야 53 장에서의 연약한 순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예를 든다면 오늘날의 서울, 평양과 같은 큰 도시들의 죄악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도시에 대한 이러한 책망과 함께, 진정 이스라엘을 다시릴 큰 자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나올 것임을 예언한다.

### 18과 남유다의 쇠락

왕정 총결산: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과 눈금으로 모든 것을 계수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의 왕정을 총결산하신다. 계산이 다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의 왕정을 접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신다.

### 19과 잠깐의 징계

영원한 절망이 아닌 잠깐의 징계: 남유다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다. 열왕기하 24~25 장, 역대하 36 장을 끝으로 약 500 여 년간 이어져 온 왕정이 막을 내린다.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절망은 아니다. 이는 잠깐의 징계이다. 징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온몸으로 사역했던 예레미야를 만나게

된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B.C.586 년 남유다의 멸망을 기점으로 멸망 이전의 전기 사역, 멸망 이후의 후기 사역으로 나눈다.

탄식의 땅 소망의 노래: 멸망 이후 예루살렘은 탄식의 땅 그 자체이다. 그러나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소망이다. 이를 발견한 예레미야가 진정한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

형제에게 환난이 닥치는 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날, 형제의 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했던 에돔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다.

### 20과 포로민 설득

그말 강변의 설득: 이제 무대는 바벨론으로 바뀐다. 이제부터는 바벨론 포로 70 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사명은 바벨론에 끌려온 엘리트 포로들에게 왜 끌려와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포로민들에게 전해지는 33 장을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21과 제국 변동의 밑그림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그린 다니엘: 다니엘이 태어날 때 세계를 장악한 제국은 앗수르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는 바벨론이었다. 이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다니엘은 제국의 변천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다니엘은 이후에 있을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예언하게 된다.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높은 영성과 사회성 때문이다.

## 22과 성전 재건

1,2 차 포로 귀환: B.C.537 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조서 발표를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에스라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역사 순서대로 배열하여 읽을 수 있다.

에스라 1~4 장/학개, 스가랴/에스라 5~6 장/에스터/에스라 7~10 장

## 23과 성벽 재건

중간목표 최종목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 성벽을 재건한 것 모두가 중간목표에 불과하다. 느헤미야의 최종목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이웃의 기쁨이 실현되는 것이다(느 12:43). 이는 멸망 당시의 예루살렘 모습(애 2:11~12)과 통으로 볼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24과 고백과 침묵

천오백 년 사랑의 아쉬움: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난 천오백 년 사랑의 아쉬움 그 자체이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400 년간 침묵하신다.

## 25과 헬라 제국과 중간사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 와 ‘이렇게’ 사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구약 중간사는 말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 3:16 의 말씀에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대답하신 때문이다. 신구약 중간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고 보여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 26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신약성경의 삭개오와 마태,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 베들레헴까지의 먼 길을 여행한 것 모두 로마의 ‘세금’ 과 관련이 있다. 이 화폐와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했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

### 27과 예수님 탄생

이천 년을 잇는 징검다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1). 마태는 구약의 이천 년 역사를 이 한마디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예수님의 족보가 구약과 신약의 이천 년을 잇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들러리의 기쁨: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다한 요셉과 마리아, 동방박사와 목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까지, 모두들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충만히 누렸던 사람들이다. 이들의 기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살펴볼 수 있다.

끝까지 가져갈 기초들: 본격적인 공생애를 준비하심에 앞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져갈 기초’ 를 놓으신다. 그 핵심은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 이었다.

### 28과 공생애 3년

한 영혼 사랑①-하늘 비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영혼 사랑’ 을 몸소 실천하신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영혼 사랑’ 의 첫 번째

내용은 천국을 인생들에게 전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가장 잘 소개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비유: 예수님은 ‘비유’ 라는 교수법을 이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명쾌하게 설명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만드신다.

한 영혼 사랑②-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한 영혼 사랑’ 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랑을 위한 도구로 내놓으셨다는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능력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직접 당신의 손을 사용해서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시느라 피곤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한 영혼 사랑③-비밀 언덕이 되어: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인, 세리, 창기 등 연약한 이웃들의 진정한 ‘비밀 언덕’ 이 되어 주셨다

## 29과 마지막 일주일

어린 나귀를 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 과 ‘사람의 가치’ 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겐손의 왕의 모습으로 시작하신다.

공의의 저울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

침묵으로 익힌 열정: 빌라도의 재판에 ‘진실’ 이 있는가?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진실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침묵 안에서 오랫동안 품어 오신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가득한 진실만이 있을 뿐이다.

## 30과 십자가 승리

계약과 관계의 신비, 십자가: 계약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벌이며 심판의 장소이다. 죄의 값은 사망(롬 6:23)이라고 정하신 그 계약에 따른 것이다. 온 인류가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또한 관계의 신비가 담겨 있다. 십자가는 계약과 관계, 처벌과 용서,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된 장소이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십자가를 볼 것이 아니라 계약과 관계의 두 방향을 통으로 보아야 한다.

## 31과 열리는 제자 시대

교회, 사명과 축복의 통로: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비로소 깨달은 ‘함께’의 의미: 제자들이 그동안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함께’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이로써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의 진정한 정체성, 즉 ‘열방을 향한 교회’로 서게 되었다.

##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 안디옥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다. 앞으로 바울의 모든 전도여행의 베이스캠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 이후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진정한 자유를 위한 대장정: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 다음 전도여행의 꿈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길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길인지 다 경험해본 두 사람이 그 길을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로 또 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다. 문제는 ‘마가’ 때문이다. 바나바는 마가를 또 데려가자고 하는 것이고, 바울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중간에 포기한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전도팀을 꾸리기로 한 것이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과 함께 읽는 편지(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동선과 그가 쓴 서신서들을 더불어 읽어야 한다. 신약의 주를 이루는 서신서들은 그 발신자와 수신자가 엄연히 존재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내용과 서신서들을 함께 묶어 읽는 것은 그 편지가 쓰인 이유, 시대적 상황과 배경, 편지 안에 담긴 바울의 마음 등을 헤아려 이해하는데에 큰 도움이 된다.

##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제자훈련, 사랑과 은사: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아볼로가 고린도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들고 바울을 찾아온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 라고 편지한다.

바울의 3차 전도여행과 함께 읽는 편지(고린도전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마무는 동안 이 편지들은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

## 35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땅 끝 비전과 믿음직한 섬김: 3차 전도여행 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여행 경로는 다음과 같다.

에베소→고린도→빌립보→드로아→앗소→미둘레네→기오→사모→밀레도→고스→로도→바다라→두로→돌레마이→가이사라→예루살렘

사도행전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앞으로의 선교 계획을 담은 책인 로마서와 함께 읽는다.

##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몸 된 교회를 위한 기쁨의 고난: 예수님과 교회를 향한 진심어린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들이 바로 옥중서신이다.

빌립보교회: 2차 전도여행 도중 바울은 ‘마게도냐인의 부름’(행 16:8~10)으로 인해 빌립보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때 루디아와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금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 빌립보의 간수는 변화받게 되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빌립보를 방문했다. 바울의 로마 감금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다(빌 4:18).

##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바울의 특사였던 두기고는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을 했다. 덕분에 바울은 사랑과 기쁨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 영혼을 위한 편지: 바울은 한 사람, 오네시모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편지를 쓴다. 사회적으로 별 쓸모없다고 여김을 당하고 있던 노예의 구원을 위해서도 바울은 자신의 인격을 걸면서까지 편지를 썼다.

###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최후 승리를 꿈꾸는 동역자들에게: 복음 전도자로 한길을 걸어온 바울이 최후 승리를 꿈꾸면 함께 복음을 위해 일했던 동역자들에게, 특히 아들같이 아꼈던 디모데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

###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움직이는 교회: 십자가 사건 이후 30년 동안 유지해 오던 분위기가 이제 크게 바뀐다. A.D.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몰린 기독교는 지도자들이 대거 순교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교회공동체가 안팎에서 거짓교사와 이단사상이 등장한다. 이때 박해와 이단의 거짓사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쓰여진 공동서신은 복음을 위해 고난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일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열어준다. 말 그대로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였다. ‘공동서신’은 이러한 내용들을 전제로 두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수신자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라는 면에서 바울서신을 제외한 여덟 개의 편지를 ‘공동서신’이라 한다.

인내를 통한 소망의 성숙: 베드로는 베드로전후서에서 ‘고난’과 ‘소망’을 묶어서 이야기한다. 고난 가운데 내일의 영광을 생각할 때 지혜가 나온다. 고난 속에서 성숙해지고, 영광 중에서 교만하지 않고, 축복 속에서 발전될

가능성을 꿈꿔야 한다. 고난 가운데서 행동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며, 영광 가운데서도 사명과 눈물, 수고와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 40과 최후 승리의 노래

사랑의 힘으로: 요한서신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들은 많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거둬진 혼란 가운데 있었다. 당시 사회의 세계관, 인생관, 사고방식으로 기독교를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복음을 가감하여 기독교의 순수성을 흐리는 경우도 있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역설한다(요일 4:1~4)

복이 되는 책,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곧장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계 1:3). 이 말씀은 굳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승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에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의 찬가’ 라고 말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번역서적

Schmidt, Eric. Jared Cohen, 이진원 역. *새로운 디지털 시대* 서울: 알키, 2013.

### 한국어서적

강학주. *Face to facebook: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으로 리드하라*. 서울:

Infinitybooks, 2011.

곽기영. *소셜네트워크분석*. 서울: 청람, 2014.

김정탁. *미디어와 인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박용우 외. *크리스천 SNS와 모바일 네트워크: smart phone*.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11.

소셜미디어연구포럼. *소셜미디어의 이해*. 서울: 미래M&B: 미래인, 2012.

이영호. *블로그 & 소셜네트워크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기: 블로그, 티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마이피플 만들기*. 파주: 세진북스, 2011.

이준구. *페이스북 이펙트: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 서울: 이라크네, 2010.

조병호.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통독원, 2018.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3.

조윤희 편저. *정보사회론*. 서울: 신지원, 2013.

조현재, 조경국. *페이스북이 정말 쉬워지는 착한 책: 누구나 페이스북을 쉽게*

*활용하게 해주는 84가지 기술*. 서울: 황금부엉이, 2012.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9.

조병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서울: 통독원, 2014.

조병호, *CBS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서울: 통독원, 2016.

### 논문, 잡지

강용훈.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시대의 선교방법 모색.”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권수민. “소셜 네트워크와 문화선교의 실천적 방안 Social networks and practical ways of cultural missionary work.”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 2013.2

박성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지식공유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8.

박주영.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웹(Web) 3.0시대의 복음전도전략.”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백병수. “SNS 이용자 특성 분석: 정부 웹사이트 및 포털 사이트와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2.

설진아. “소셜 미디어(SocialMedia)의 진화양상과 사회적 영향.”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9. 12.

신광섭,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시대의 선교 모델 연구.”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신현철.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행태 분석 Analysis of user characteristics and usage determinants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in Korea.”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7.2

심재원. “개방형 혁신이 소셜 네트워크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페이스북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open innovation strategy on social network value: in case of Facebook.” 한국과학기술원, 2010. 2.

- 안효찬.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시대의 청년 교육목회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 우정현. “소셜 네트워크에 기반한 모바일 러닝 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2010. 8.
- 유지은. “소셜 네트워크 팬덤의 참여 구조 연구: 페이스북(Facebook)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8.
- 이광석.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현대 목회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2.2.
- 이미림, “Facebook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학습 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2016.
- 이도복,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시대의 교회의 과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1.
- 정기목, “선교 대상으로서 사이버 자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 조성실.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 세대를 향한 교회의 대응과 과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2.
- 조윤경. “페이스북 기반 소셜러닝(Social Learning) 학습환경 설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8.
- 차승봉. “대학생의 Social Network Service 참여와 학습성과에 관한  
구조방정식모델.”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8.
- 최예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형에 따른 충족적소 연구: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중심으로 A study of gratifications niche  
among social network services: focusing on Kakaostory, Instargram,

- Facebook and Twitter.”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6.2
- 김도훈.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신학적 이해.” *목회와 신학* 261, 2011. 3, 38-45.
- 김소영. “소셜네트워크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8-4, 2012, 707-728.
- 김윤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KISDISTAT Report*, 2016. 4, 7-12.
- 김찬현, “소셜 네트워크 시대, 한국 교회 현주소는?” *목회와신학* 261, 2011. 3, 30-36.
- 박재진, 황성욱, 박홍원.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39-2, 2013. 8, 93-109.
- 안홍철, “미디어는 메시지다?” *한국기독교공보* 2854, 2012. 6, 16.
- 오규훈,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 *목회와신학* 261, 2011. 3, 46-54.
- 오윤선, “소셜 네트워크 시대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목회와 신학* 261, 2011. 3, 98-102.
- 이경민, 김찬희, 박한우. “SNS 매개 학습공동체의 학습네트워크 탐색: 페이스북 그룹을 중심으로 Network Analysis of SNS-mediated Learning Community: A Facebook Group 'Magic of Flipped-learning'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2B, 2017. 4, 873-884.
- 이종연, “대학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사례 연구.” *사회과학연구* 25집 1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93-123.
- 정기복. “뉴미디어 시대와 미디어 선교.” *선교와신학* 32, 2013. 8, 77-110.

최원준, “소셜 네트워크 세상에서 목회하기.” *목회와신학* 261, 2011. 3, 29.

홍삼열, “소셜 네트워크의 목회 적용기,” 『목회와 신학』 통권261호. 2011. 3, 66-77.

## 인터넷 자료

신 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1&sMenuType=3&controlNoSer=43&controlNo=13139&language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김윤화, 신 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 추이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11&idxno=65116&page=1&total=195&sc\\_area=&sc\\_word](http://media.nodong.org/bbs/list.html?table=bbs_11&idxno=65116&page=1&total=195&sc_area=&sc_word)

김윤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http://www.kisdi.re.kr/kisdi/fp/kr/publication/selectResearch.do?cmd=fpSelectResearch&curPage=1&sMenuType=3&controlNoSer=43&controlNo=13605&languageDiv=1&searchKey=TITLE&searchValue=&sSDate=&sEDate>

신현철, 김용규. “국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용행태 분석” [전자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http://www.kisdi.re.kr/kisdi/fp/kr/board/selectSingleBoard.do?cmd=selectSingleBoard&boardId=GPK\\_EVENTLOG\\_WORK&curPage=1&seq=30643&reStep=10299&ctx=\\_](http://www.kisdi.re.kr/kisdi/fp/kr/board/selectSingleBoard.do?cmd=selectSingleBoard&boardId=GPK_EVENTLOG_WORK&curPage=1&seq=30643&reStep=10299&ctx=_)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

